

濟州島 變身說話 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 出 者 高 碩 希

指導教授 玄 容 駿

1985年 月 日

高碩希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3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인

副審 인

副審 인

1985年 月 日

目 次

I. 序 言	1
II. 濟州島 變身 說話系의 變身 樣相 및 特徵	6
III. 濟州島 變身 說話의 類型	
1. 變身 誘惑型	20
2. 變身 應報型	23
3. 變身物 退治型	25
4. 變身 由來型	27
5. 變身 逃避 隱身型	30
6. 變身 鬭爭 내기型	33
7. 變身 交媾 出生型	36
8. 變身 異物 獲得型	38
IV. 濟州島 變身 說話의 構造	
1. 變身 모티브와 構造 體系의 關係	40
2. 變身 插話의 構造的 機能	44
V. 變身 모티브의 文學的 意味	49
VI. 結 語	53
* 變身 說話 收錄 資料集	56
* 變身 說話 資料 目錄	57
* 參考論著	61
* 英文抄錄	64
* 附 錄	67

I. 序 言

濟州島(이하 ‘本島’라 칭함)에서 口傳되는 서사 내용도 本土와 다름없이 민중의 사고법으로 표출되는 소박한 감정, 사상 등을 소박한 언어로 표현하여 神格을 中心으로 宇宙, 人類, 國家 等の 成立과 그 運命을 해석, 설명하든지 歷史的인 英雄, 事件 등을 지적으로 설명하든지, 또는 興味를 目的으로 庶民의 生涯와 運命에 대한 이야기를 低級文化民族의 神話的 思考法으로 產出하여 集團 民族의 所產, 口傳, 流動하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이들 神話, 傳說, 民譚을 통틀어 ‘說話’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說話는 일정한 構造를 지닌 꾸며낸 事實的인 이야기이며, 事實與否 보다도 文學的인 興味와 教訓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¹⁾ 그러므로 구비문학의 한 범주 속에 구전되는 이야기의 일반성은 敘事的인 構造를 형성하게 되며 그 서사 구조의 유기적인 관계는 민중의 생활 및 사상의 반영으로 文學性을 충분히 내포하게 된다. 또한 이야기의 일반성은 민중의 世界觀과도 통할 수 있고, 그 속에 나타나는 構造의 意味性은 民衆生活의 眞實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 眞實性은 곧 현실과의 관계에서 非事實的인 虛構요, 超感覺的인 奇蹟이 내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²⁾ 민중들에게는 그대로 受用, 傳承이 이루어진다.

本島에서 享有, 傳承되는 비사실적인 내용이나 초감각적인 내용 중에 형태를 변화시키는 변신 내용의 이야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變身은 어떤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뜻일 때 그것은 變形・態・化, 국면 전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metamorphosis의 양식이 되어 넓은 의미의 타형태 변화로써 신비, 기적에 속하는 原初思惟의 可變性도 민담 양식에서는 당연히 수용되기 때

1) 玄容駿, 「說話文學과 濟州島」 (제주도, 1962), pp. 117-118에서 설화의 개념은 ‘漂游型的文學’이라 하여 口傳性을 강조한 바 있음.

2) 張德順 外 3人, 「口碑文學 概說」, (一潮閣, 1976), p.15.

3) 張德順, 「韓國說話文學 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84), b.160.

문에 原初 思惟의 이해, 그리고 文藝學的 접근이 가능해 진다.⁴⁾ 이러한 설화 내용의 하위 개념인 本島 變身說話도 문학적 형상을 위한 것이고, 島民 意識의 기저에 있는 상상력의 발현으로 볼 수 있기에 변신 내용은 세계성을 떠든지, 地域的 特殊性을 떠든지⁵⁾ 본도민들에게는 一元性的 범주에서 당연한 사실로 수용되며 그 變身은 설화 구조상의 엄격한 기능 역할로 한정되어 나타난다.⁶⁾

本島에서 전승되는 說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변신 내용이 내포된 설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은 설화의 하위 개념 중 變身 說話로 선정하고, 그 基抵에 내포된 文學性 파악 및 접근의 필요성이 있겠다.

本 研究에 대한 方法的인 관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本島 變身說話의 文學性에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類型化 및 構造體系의 유기적 관계에서 살펴 보았다. 설화의 보존 상실성과 可變性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류, 정리는 학문적 고찰의 제 1 차적인 문제이다. 설화의 유형적 개념에서 톰슨(S. Thompson)의 정의⁷⁾에 대한 역사 지리학과의 개념은 다소 차이를 내포하고 있지만, 후자의 유형 개념은 多數의 說話들의 總話이며 이 說話들은 독특하고도 고유한 공통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것과 명확히 구별되고 그 공통성은 역사 발생적 친근성에 둔다고 했다.⁸⁾ 그러나 설화 작품의 下位 類型化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4) 李相日, 「變身說話의 類型分析과 原初思惟」, 『民俗文學研究』 (정음사), p.102, p.127에서 요약.

金長煥, 「變身說話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1982), pp.32-36에서 變身의 개념 및 종류를 遁甲, 捉呪, 脫身, 化身, 化石, 還生 등으로 보아 그 특징을 밝히고 있음.

5) 玄容駿, 前掲論文, p.119에서 說話의 世界性은 地理的 位置에 따른 傳播의 外樣性이며, 地域的 特殊性은 地域的 條件에 따른 固有性의 保有의 측면으로 서술하고 있음.

6) 李相日, 前掲論文, p.105.

7) Stith Thompson, 「The Folktale」 (New Y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415. : "A Type is a traditional tale that has an independent existence. It may be told as a complete narrative and does not depend for its meaning on any other tale

A Motif is the smallest element in a tale having a power to persist in tradition

8) Ina-Maria Greverus, 金允漢 譯, 「主題(Thema), 類型(Typus), 話素(Motiv): 說話研究의 개념 규정을 위하여」, 『口碑文學 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學 研究室, 1980), p.168.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類型化 方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⁹⁾ 설화계의 포괄적인 분류에 대한 하위 유형화 방법에 대하여 ‘話素¹⁰⁾, 主體者와 客體者와의 關係¹¹⁾, 대상에서 느끼는 인식의 관점 및 양상¹²⁾ 작품 내의 사건 전개¹³⁾ 등에 중점을 두어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분류 방법을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類型化 방법 및 構造 분석에 대한 기본 요소를 모티브로 적용하였다. 變身說話의 내용을 구성하는 최하위 단위로서의 話素는 이야기에 참여되는 形態的 기능이 되지만, 모티브는 이야기 내용의 意味的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성격에 의해 이야기 내용을 構造化 시킬 때 話素보다는 모티브가 타당할 수 있으므로, 變身說話에 나타나는 變身樣相의 분석이나 그 변신 양상에 따라 共通 類型化 및 構造的 意味性 파악이 變身 모티브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고에 적용한 모티브의 의미 개념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겠다.

모티브는 서사 구조의 유기적 원초 형태이며 話素의 복합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類型化 및 主題 意味를 내포하므로 모티브는 통일된 유형화의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변신 과정에서 형성된 모티브의 의미적 연결소는 변신 형태의 양상 분석과 동시에 유형화의 기능과 함께 문학성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 文學性은 곧 하나의 敘事的 구조 통일과 긴밀성을 가짐과 동시에 민중 생활 및 의식 표

9) 曹喜雄, 「說話의 類型 및 分類」, 『韓國 口碑文學選集』(一潮閣, 1982) p.2, pp.17-19에서 韓國說話 分類表를 제시하고 I 動(植)物譚, II 神異譚, III 一般譚, IV 笑話 V 形式譚 등의 5개 항목으로 分類한 뒤 제 2차적으로 세분된 2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약술하고 있음.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 研究」(一潮閣, 1981), p.26에서 說話・口碑・民譚 등 雜多하게 불러 온 이른바 敘事的 陳述 narrative discours 이라는 명칭을 一括하여 ‘民譚’이라 했음.

10) 崔來沃, 「枯木生花 說話의 性格」(冠嶽語文 研究 第2輯, 1977.12)에서 ‘靈交得孫型’, ‘出他得孫型’ 등의 2개 分類와, 「山移動說話의 研究」(冠嶽語文 研究 第3輯)에서 ‘移動型, 地域型 失機型, 外入型’ 등의 4개 항목으로 분류한 바 있음.

11) 玄吉彦, 「風水(斷脈) 說話에 대한 一考察」(韓國文化 人類學 第十輯, 1978.12)에서 主體者와 客體者의 關係에 따라 三類型으로 제시한 바 있음.

12) 金長煥님은 「變身說話研究」에서 현실 인식의 관점에 따라 ‘自己 保存 成功型, 自己 保存 失敗型, 自己超越成功型, 自己超越失敗型’ 등으로 分類 試圖한 바 있음.

13) 林甲煥님은 「맹 說話 研究」(啓明大學校 大學院, 1983)에서 ‘神格化한 이야기, 人格化한 이야기, 神・人格化 복합 이야기, 動物이야기’ 등으로 分類 試圖한 바 있음.

현에 대한 주제 의미와도 연관되는 것이다.

또한 口傳 敍事 樣式의 構造化 과정을 ‘話素+話素→모티브+모티브→類型+類型→說話系¹⁴⁾+說話系→說話’의 형성 관계로 이루어짐을 볼 때, 그 의미적 기능과 하위 유형화의 기능은 모티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變身說話에 나타나는 모티브는 變身 動機와도 상통되는 요소이다. 이때 그 變身 動機는 민중의 설화 의식에 대한 形象化, 事件 진행에 따른 공통 유형의 구조 체계 및 挿話의 變異・轉移化에 대한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 本島의 變身說話系의 下位 類型은 「變身 誘惑型」, 「變身 應報型」, 「變身物 退治型」, 「變身由來型」¹⁵⁾, 「變身逃避 隱身型」, 「變身鬭爭 내기型」, 「變身交構 出生型」, 「變身 異物 獲得型」 등 8 가지 類型으로 분류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본고의 研究 目的은 變身說話의 意味的 機能을 내포하는 모티브에 의해 하위 類型화와 그에 따른 諸特徵, 그리고 敍事 構造體系를 분석하고 變身說話의 文學性에 접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또한, 본고의 研究 範圍는 변신 설화의 世界性을 고려하여 本島의 自生的인 성격이 강한 설화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他處에서 流入, 傳承, 享有되는 내용까지 고찰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변신설화의 하위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명칭은 敍事的 陳述(narrative discourse)의 성격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三分法을 완전히 탈피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신화적 성격이 내포된 설화를 ‘神話系 變身說話’, 전설적 성격이 강한 설화를 ‘傳說系 變身說話’, 민담적 성격이 강한 설화를 ‘民譚系 變身說話’, 라는 일반적 성격을 내포한 하위 개념으로 구분하여 명명하고자 한다.

본고에 적용된 자료는 本島에서 傳承, 享有되는 변신 과정이 내포된 내용으로 이미 조사 채록된 기존 문헌자료와 필자 조사 자료¹⁵⁾를 포함시켰다. 자료의 총수는

14) 崔來沃, 「韓國 口碑傳說의 研究」 (一潮閣, 1983), pp.13-21에서 說話型에 대한 묶음의 개념으로 사용한바 있으며, 또한 그 하위 구조 이론을 4 단계로 제시하였음.

15) 필자 조사 자료는 두 지역에서 수집, 채록된 것으로 그 중 변신설화를 선택했다. 조사기간은 1984.8.13-14 양일간 김효현 학생(당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년 재학)과 제주시 봉개동(명도암) 일대의 현지 조사, 1985.1.15-16 양일간 필자 단독으로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일대의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86 편으로 본풀이 내용인 神話系 變身說話 15 편, 傳說系 變身說話 39 편, 民譚系 變身說話 32 편 등이며 그 중 文獻 資料는 74 편에 비해 필자조사 자료는 약 16 % 에 지나지 않는 12 편이다. 필자 조사 자료는 본고 부록으로 실는다.

II. 濟州島 變神 說話系의 變身 樣相 및 特徵

本島 變身 說話가 어떤 문화, 역사, 사회적 경로를 거쳐 他處에서 流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도민의 영상(image)이며 사고 작용에 대한 결과이다. 이처럼 도민들의 생활에 나타나는 꿈이나 의지의 상징적 의미는 他 口碑文學과 같이 설화작품 내에 그대로 표현되지 않고 他 要素에 의탁하든지,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든지 하는 등의 人爲的인 표현 방법으로 形象化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本島 變身 說話에 나타나는 變身 樣相은 도민 의식과 同一한 性格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설화가 민중 생활에서의 規範的인 기능을 내포하여 本島民들이 外勢와의 對決에 대한 對賞行爲로써 적극성임과 동시에 강인한 抵抗 精神으로 삶의 의지를 形象化 한 것이다.¹⁶⁾ 이러한 것은 ‘斷脈 모티브’로 형상화된 本島의 自生的 성격이 강한 「變身逃避 隱身型」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外勢로 형상화된 호종단, 고종달, 권력 등과 神으로 형상화된 濟州島民의 意識과의 대립, 갈등으로 압박에 대한 적극적인 抵抗 意識이나, 絶望과 挫折에 대한 도전과 극복 의지의 直絃的 表現보다 神과 島民의 동일성으로 변신 과정의 필요성과 그 성격을 그대로 수용하여 표출한다.

이러한 變神은 항상 肯定的인 성격만은 아니다. 否定的인 성격에 의해 形象化된 變身物과 대적하기 위해서도 변신 과정은 필요했거나, 변신 과정이 없으면 그 변신물과 대적하기 위한 힘과 지략이 있어야 했다. 變身 樣相은 곧 肯定과 否定의 二重的 意味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변신설화 내용중 부분적 변신 양상이나, 挿話的인 變身 內容까지 포함했다.

변신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는 모티브는 單一化되어 있지 않고 變身 主體의 변신 모티브에 따라 설화 각 편마다 달라질 수 있는 轉移 過程을 보이기도 한다. 즉, 誘惑, 婚姻(愛情), 鬭爭(내기), 隱身(逃避), 異交(出生), 應報

16) 玄吉彦, 「고종달型 說話에 나타난 濟州民의 意識構造」(韓國文化人類學 第九輯, 1977.

12), p.152.

(孝, 不孝, 愛情, 怨恨) 등의 모티브의 多樣性은 설화 내용을 다양하게 轉移化 시
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例話에서 轉移化 과정을 뚜렷이 알 수 있다.

‘例話 1 (資料 44)’

- 1) 옛날 산방산이 낳은 암굴의 여신이 인간으로 화하여 고승과 결혼하여 행복
하게 산다.
- 2) 모든 사람들이 산방덕의 미모를 탐내었는데 특히 관원이 산방덕을 차지하려
고 한다.
- 3) 고승은 누명을 쓰고 재산도 빼앗긴 채 귀양을 간다.
- 4) 산방덕은 인간의 죄악을 한탄하며 산방굴에 들어가 바위가 된다.
- 5) 지금도 흐르는 샘물은 산방덕의 눈물이다.

‘例話 2 (資料 60)’

- 1) 옛날 화순리에 천민인 고성목이 산방덕을 첩으로 삼아서 부유하게 산다.
- 2) 관가에서는 고성목의 재산을 파악하다 산방덕의 미모를 탐낸다.
- 3) 고성목은 관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으나 잡혀가게 된다.
- 4) 산방덕은 망할 것을 미리 알고 새로 변하여 산방굴에 들어가 버리고 고성목
의 집터(‘금계 포란형’)는 파헤쳐 망한다.

위의 ‘例話 1(자료 44)’은 변신 양상이 ‘여신→산방덕(인간)→바위(精靈→人
間→事物)’로 형상화 되고, ‘例話 2(자료 60)’는 ‘산방덕→새(人間→動物)’로
의 변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例話 1, 2’는 동일한 話素(산방덕)로 형상화
된 變異型에 해당하는 本島의 自生 說話의 성격이 강하다. 이때 변신 모티브의 變
異 및 轉移化의 성격 차이는 變身 樣相 變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人間→事物(바위)’과 ‘人間→動物(새)’로의 變異는 모티브의 성격을 변화시킨
다. ‘例話 1’은 ‘愛情挫折’과 ‘怨恨’이 복합되어 있으며, ‘例話 2’에서는 ‘敗
亡 豫知’와 그로 인한 ‘逃避’가 복합되어 각각 사물과 동물의 變異的인 話素가
선택된다. 이처럼 변신 모티브의 기능에 따라 變身 樣相의 變・轉移化는 물론 내

용이나 구조 체계의 변이까지 초래한다. ‘예화 1’에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5단계로 되어 있으나,¹⁷⁾ ‘예화 2’에서는 4단계 구조 체계를 이루면서 증거물 제시의 「證示部」단락이 소멸된다. 즉, 설화의 이러한 경향은 傳說이 民譚化되는 과정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예화 1’의 변신 설화가 증거물의 제시로 말미암아 眞實性, 現場性 등의 사실적인 성격을 강조하려는 것은 변신물인 ‘事物(바위)’의 성격으로도 파악이 가능하다. 즉 傳說系 變身 說話의 변신 양상과 民譚系 變身 說話의 변신 양상을 비교할 때 민담계는 ‘人間→動物’로의 변신 양상이 優位에 서고, ‘人間→事物’로의 변신 양상은 전설계에 강하다. 그러므로 ‘예화 2’는 전설계가 민담계로 전이되는 과정으로써 민담계 성격이 강한 傳說系 變身說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變身 說話系에 나타나는 모티브의 성격은 설화 내용의 변이는 물론 主題的인 意味의 方向도 결정되며 事件 進展에도 밀접한 連關性을 갖는다. 그러나, 단락 구조의 진전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남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ㄱ) 導入部 (1) 具體的인 人物 提示 — 산방덕(예화 1, 2)

(2) 狀況 提示 — 행복한 생활: 결혼(예화 1)

부유한 생활: 첩(예화 2)

ㄴ) 展開部: 導入의 進展, 驚異의이며 심각한 사건 발생 — 관원이 산방덕의 미모를 탐냄 + 계락을 꾸밈(예화 1, 2)

ㄷ) 發展部: 驚異의 事件 + 對立, 葛藤 樣相 — 고승이 귀양감(예화 1)

고성목이 잡혀감(예화 2)

ㄹ) 解決部 (1) 事件의 解決 — 부정적인 성격(예화 1, 2)

(2) 證據物 提示 — 바위가 됨(예화 1)

위의 단락 구조 체계로 보아 변신이 발생하는 ㄹ) 의(2) 證據物 提示 段落素의 공통점은 모든 사건이 부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ㄷ) 發展部 段落素의 갈등 양상과 밀

17) 玄吉彦, 「제수도의 오누이 장사전설」, 『耽羅文化 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 研究所, 1982), p.29에서 힘내기 전설에 대한 구조를 5단계로 설정하여 (1) 발단 (2) 갈등 (3) 위기 (4) 결말 (5) 증거물 등으로 적용하였음.

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신 양상의 모티브는 ‘例話1’에서 ‘愛情挫折怨恨’으로 나타나며 ‘例話2’에서는 ‘敗亡豫知逃避’로 나타난다. 이것은 설화 향유자들이 소유한 설화 의식의 변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설화 내용의 主題的인 意味 또한 變異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설화의 중심 話素들은 行爲의 進行과 관련될 때 비로소 意味와 根本 思想을 내포¹⁸⁾ 하여 素材의 범주에 속하지만, 모티브와 유형에 내포된 根本 思想은 내용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話素와 모티브에 연결되는 根本 思想은 곧 敘事 樣式에 대한 主題的 意味와 同一하다.

本島 變身 說話系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神話系 變身 說話의 변신 양상은 傳說系나 民譚系 變身 說話와는 다르다. 본 도의 神話系 變身 說話는 거의 巫俗 儀禮 특히 ‘본풀이’¹⁹⁾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풀이는 설화적 개념으로써 祭次 이름과 구별하면 그 뜻은 구별되어 巫俗 儀式에서 한 祭次로 吟誦되는 본풀이가 韻文 說話임과 동시에 正統的인 神話로서 敘事的 文學일 수 있다.²⁰⁾ 또한 이것은 神格一生의 生活史 이야기로 具象化된 整然한 神話 文學인 것이다.²¹⁾ 그러므로 祭儀에서 지나지 않으므로 본풀이와 祭儀 관계는 무시될 수 없다는 견해²²⁾가 民俗學을 포함한 종합적인 考究의 방법으로는 타당하지만, 본 考의 본풀이 내용은 하나의 구비 문학의 범주로서 敘事文學의 類型과 構造 體系에 관계되는 變身 樣相의 特性을 파악하고자 하는 差異를 갖는다.

變身 說話의 변신 형태는 주로 ‘人間類’, ‘事物類’, ‘植物類’, ‘精靈類’, ‘動物類’ 등 5개 항목으로 적용이 된다. 이 중 전설계나 민담계 변신 설화의 변신 양상은 거의 비슷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나, 신화계는 人格神의 卽物化 과정에 해당하는

18) Ina - Maria Greverus, 金允漢 譯, 前掲論文, (註8), pp.171-173에서 재인용 함.

19) 玄容駿, 「濟州島 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19에서 神의 내려담, 곧 神話를 창하여 기원하는 의례라 한 바 있음.

20) 玄容駿, 「본풀이와 敘事詩」 (濟大學報 第四輯, 1962), p.46.

21) 玄容駿, 「巫俗神話 본풀이 形成」, 『國語國文學 26』 (국어국문학회, 1963) pp.130-131에서 본풀이의 성장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1) 成長型 본풀이 (2) 完成型 본풀이 (3) 說話型 본풀이라고 구분한 바 있음.

22) 高光敏, 「濟州島 處女堂 본풀이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1982), p.5.

神格 精靈에서 주로 「動物化 變身(자료 1-6, 8-14)」과 「事物化 變身(자료 7, 15)」인 두 가지 變身 樣相으로 나타나서 한정성을 띤다.

그러나, 植物化 變身樣相은 본도 변신 설화계에서 공통적인 빈약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表 1〉 神話系 變身 樣相의 特徵

區分 變身類型及即物化		變身物 (神格精靈)	性 格 及 特 徵
ㄱ) 由來 및 怨恨變身	動物化	풀벌레, 술개, 지네, 각다귀(2), 모기(2), 뱀, 솔치, 굴뚝, 굴뚝이,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勸善懲惡의 善意識 · ‘각다귀, 모기’의 變身은 變異要素의 첨가형태
	植物化	버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譚系 轉移化 性格 內布 · ‘지네’와 同一性(버섯)
ㄴ) 神格化 變神	動物化	뱀(7), 청비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神格에 대한 認定 및 奉祭
	事物化	바둑돌, 바위, 미륵불, 옷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循環的 變身 構造의 형태 · 人格神의 即物化의 部分 — 呪術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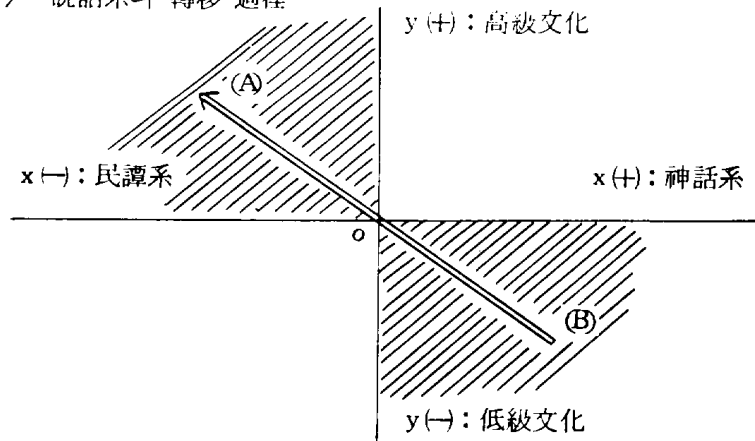
‘表 1’에서 보듯이 神話系 變身 說話의 변신 양상은 「由來 및 怨恨 變身」과 「神格化 變身」으로 2대별 된다. 이때 나타나는 변신 형태는 민중에 대한 자연 그 대로의 원형상임과 동시에 집단 세계의 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민간 신앙이나 원시 종교에서의 鬼靈觀처럼 풍부한 原型象이 반영되었다는 견해와 일치하며 결코 원초적인 상태로만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물의 특성이 ‘由來 모티브’의 의식화에 의한 挿話 내용으로 포출되는 것은 神話系 變身 說話에서 民譚系 變身說話로 轉移되는 제 1 차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一般神 본풀이(자료 1-5)에 나타나는 變神 樣相은 堂神, 祖上神 본풀이와도 전혀 다를 수 있다. 즉 변신 양상의 由來의 기능을 내포한 모티브로써 민담계의 삽화적인 기능과 동질성을 띠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堂神, 祖上神 본풀이

23) 李符永「分析心理學：C.G. Jung의 人間心性論」(一潮閣, 1982), p.93.

에 나타나는 변신 양상은 神話的인 구조 형성에 필요한 話素 및 모티브가 선택되어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解決部에서 나타나는 ‘坐定 모티브’²⁴⁾는 부락민이나 후손에 대한 봉제를 받음과 동시에 神格의 存在 가치를 부여받은 形象化 過程이 내포된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상징성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종교에 내재해 있는 특수한 도덕적, 정신적 태도의 표현 외에 다른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²⁵⁾ 이러한 信仰的 性格은 민중들이 갖는 신앙의 체험과 관계없이 最高의 가치평가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신화계 변신 설화가 전설계, 민담계 변신 설화와 異質性은 변신 양상의 성격에 의한 說話系의 轉移化이다. 당신이나 조상신 본풀이에서 민속 신앙성은 일반신 본풀이보다 강하다. 그러나 일반신 본풀이에서 나타나는 삽화적 가능인 變身由來 모티브는 神格의 완전한 세계에 내포된 神話的 宗教性, 敬畏的 神聖性이 민중 생활에 대한 사상, 감정 등으로 전환되어 흥미성 고조와 함께 神格과 人格을 同一視 하게 한다. 즉 신화계의 종교적 신성성이 약화되면서 전설계, 민담계 변신 설화로의 轉移化 樣相을 보이는 것이다.

〈圖 1〉 說話系의 轉移 過程



24) 高光敏, 前掲論文, p.6에서 處女堂 본풀이의 구성 단계를 古代小說과의 비교에 의해 神의 출생에서 좌정까지 3 단락 형태로 분류하고 그 하위 단락까지 구조화 하고 있음.

25) 칼. 융저, 이운봉 역, 「宗教 心理學」(경문사, 1980), p.92.

‘表1’에서 ‘0’은 원점으로써 原初的인 思惟의 세계를 뜻할 수도 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정상적 체험의 세계 외에 또 다른 한 세계인 神話的 世界的 信仰이 될 수도 있지만, 자연적 세계처럼 질서와 超秩序의 속성은 없다.²⁶⁾ 그러므로 이러한 原初 思惟의 세계를 떠난 x선상의 共時的 설화 세계는 기적이나 변신 등의 경이적 사건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 들인다. 또한 이 원초 세계를 중심으로 (A)의 x(+)방향과 (B)의 x(-) 방향은 서로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前者는 呪術性, 神聖性, 宗教性, 理想性, 象徵性, 單純性, 超越性 등의 人格화된 신화계 변신 설화에 해당한다면, 後者는 興味性, 事實性, 歷史性, 現實性, 倫理性, 社會性, 民衆性, 複雜性 등의 人格화된 民譚系 變身 說話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두 세계는 항상 고정화되지 않는다. x(+)는 x(-)보다 시간, 공간적이며 문화적 추세인 y(-)→y(+)에 따라 미약한 성격을 나타내며 또한 그러한 성격은 x(-)인 民譚系 轉移化에 대한 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堂神, 祖上神 본풀이에서 神의 職能 効驗, 祭物, 祭法, 祭日, 등 儀禮의 諸般을 규정하여 그 정당성을 보증하여 주며²⁷⁾ 신화 성격을 그대로 남기는 것은 「神格化 變身」에 해당한다. 그중에 뱀으로의 변신이 압도적으로 두드러져서 堂神 본풀이와 祖上神 본풀이 그리고 一般神 본풀이 중의 七星 본풀이인 10여편 중에서 80%(자료 6, 8, 9-14)이고 보면 전승 집단의 의식화 과정도 파악할 수 있겠다.

동물 외의 「事物化 變身」도 神格의 卽物化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때 卽物性은 토템(totem)과도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서 血緣觀念 등의 宗教的 現象임과 同時에 社會制度로써 집단과 totem과의 親緣 關係에서 基因한 것일 수 있는²⁸⁾ 신앙 집단 세계의 의식화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人文 事象의 人格화와 이들의 同化 및 相互間의 系譜를 정서화함으로써 그 構成이 成長해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6) 李相日, 前掲論文, pp.122-123.

27) 玄容駿, 「處容說話考」, 『民俗文學研究』, (정음사, 1981), p.230.

28) 宇野圓空, 「宗教民族學」, 玄容駿, 『堂神話의 內容 構成과 背景 民俗 信仰』(濟州大學報 6, 1964), p.23에서 재인용.

〈表 2〉 傳説系 變身說話의 變身樣相 分析

樣相	類型	1) 人間類	2) 動物類	3) 事物類	4) 精靈類
	比率	25 %	44 %	5 %	27 %
ㄱ) 人間化 (56 %)	樣 相	男子→남자	여우→여자 여우→남자 호랑이→남자 지렁이→남자 뱀→남자 개구리→남자	알(卵)→남자	馬神→남자 水神→남자(3) 水神→여자 木神→남자 仙女→여자 女神→여자
	모티브	試 驗	誘惑, 異交, 異胎, 婚姻, 退治	出 生	斷脈, 隱身 婚姻
ㄴ) 動物化 (15 %)	樣 相	남자→새 남자→모기 태아→매 여자→모기	구렁이→뱀		女神→새 水神→뱀 水神→개
	모티브	鬭爭, 異胎	逃避 (隱身)		怨恨, 逃避, 斷脈
ㄷ) 事物化 (20 %)	樣 相	남자→바위(3) 여자→바위(3) 여자→山 (2) 남자→들판	白馬→바위	관(棺)→山	
	모티브	悔恨, 怨恨, 愛情, 應報(不孝, 懲戒)		怨恨의 수반 변신 (由來)	
ㄹ) 精靈化 (9 %)	樣 相		여우→소멸됨	집→소멸됨	水神→無形體 (소리) (2) 水神→귀신
	모티브			조화의 수반변신	斷脈, 逃避

※ () 의 숫자는 변신 횟수임. 比率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것임.

〈表 3〉 民譚系 變神 說話의 變身樣相 分析

樣相	類型	1) 人間類	2) 動物類	3) 植物類	4) 事物類	5) 精靈類
	比率	29 %	42 %	7 %	20 %	2 %
ㄱ) 人間化 (56 %)	樣 相	臂의 長→短 눈의 喪失 → 회복 늙음 → 젊음 平凡性→ 초능력 불완전→완전 (회복)	여 우→여자(3) 여 우→남자(2) 지 네→여자 지 네→남자(2) 취 →남자(3) 고 기→여자 호랑이→남자 뱀 →남자	山參→ 남자(2)	병(瓶)→남자(2) 부적 → 남자	용왕→남자
	모티브	過慾, 孝道, 獲得	異交, 誘惑, 爭主, 報復, 退治	異交, 孝 道	出生, 唐僧, 鬪 爭	鬪爭(援助)
ㄴ) 動物化 (29 %)	樣 相	여자→파리(2) 남자→소 (2) 남자→지네 여자→구렁이(2) 남자→술개	수탉→말 이우→말	山參→ 돼지	黃金→구렁이	
	모티브	隱身, 殺生, 應報, 不孝, 怠慢, 怨恨	協助(奸計) 報恩	逃避	幸連(獲得)	
ㄷ) 事物化 (2 %)	樣 相				집안→바다	
	모티브				禁忌(出産): '보지 마라' : 수반변신	
ㄹ) 精靈化 (13 %)			(뱀)뱀→용(3)		눈썹→動物의世界 바위→용왕의 딸 연적→용왕의 딸	
			昇天		幸連, 救援, 婚姻	

‘表 2,3’에서 처럼 전설계나 민담계 변신 설화의 변신 양상은 그 형태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내용 및 성격상으로는 차이점이 있다. ‘表 2’의 傳説系 變身說話의 변신 양상은 21 제 39 편(변신 횟수 45 회)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表 3’의 民譚系 變身說話의 變身 樣相은 30 제 32 편(변신 횟수 45 회)의 자료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變身 主體의 변신 과정에 따른 형태의 상위 개념을 바탕으로 1) 人間 變身型 2) 動物 變身型 3) 事物 變神型 4) 植物 變身型 5) 精靈 變身型 등의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해당계 설화에 적용한 것이다.

‘表 2’의 1) ‘人間 變身型’의 변신 주체는 身體의 一部分, 胎兒 등 인간 범주에 속하는 형태는 모두 포함하여 총 14 회의 變身 樣相이 發生하는데 이 중 事物化 變身 樣相은 ‘動物化(29 %),’ ‘人格化(7 %)’에 앞서 64 %의 優位性을 나타낸다. 또한 事物 變身化의 종류도 ‘바위(자료 41 - 43, 46, 47),’ ‘산(자료 43, 45),’ ‘들판(자료 45)’ 등으로 나타난다. 이 事物化의 속성에 전승 집단의 의식 구조와 동일성을 부여할 때 事實性, 現場性, 固定性, 永遠性, 來世性 등 本島民의 생활, 감정에서 드러나는 不敗의 信念²⁹⁾을 형상화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事物 形象化의 의식은 본도 民謠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오름에 놀광	지세어멍은
둥글어멍기당도	살을메난다.
놈의칩광	소낭귀브름은
소린나도	살을메웃다.
버룩버룩	살마꽃은
흐를피영	웃어나진다. ³⁰⁾

29) 金榮敦, 「濟州島 民謠의 內容上 特色」 (濟州大學報 5, 1963), pp.190-192.

「濟州島民謠 研究」 (도서출판 조약돌, 1983), p.64에서 濟州島民의 不敗의 性格을 自強不息意志로 표현하고 있음.

30) 金榮敦, 「濟州島 民謠 研究 上」 (一潮閣, 1965). 謠 557.

‘돌’의 意味와 ‘벼름, 살마꽃’의 意味는 서로 상대성을 내포함과 동시에 二元性을 갖는다. 변화적인 생활에서 고정적이며 영원한 來世的, 未來的 理想郷을 추구하는 의식, 그 자체가 本島民의 의식이다. 그러기에 移動性, 變化性보다는 ‘돌’이라는 무변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의식으로 事物 話素가 선택된다.

또한 ‘精靈 變身型’에서는 神話系 性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神格(精靈)의 卽物性 중에 人間化는 ‘神 \leq 人間’관계의 변신 양상으로 島民과의 同一性이 내포되는 것이다. 이때 神格은 신화계와 달라 주로 풍수사상을 바탕으로 한 ‘斷脈 모티브’의 기능에 의해 인간에게 접근하는 神格으로 형상화 된다. 즉, 興亡 成衰의 대립, 갈등의 체계를 상징적으로 具體化한 斷穴, 討穴로 형상화되어 극복할 수 없는 본도의 地理的, 歷史的 狀況을 說明해 주는 본도 생성의 神話的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³¹⁾ 그래도 神聖性이 미약하게 나타난 것은 精靈化 변신 양상(20%, 자료 55 - 57)이다.

또한 變身 樣相에 따라 說話系의 轉移化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動物 變身化’에서 人間化(83%)의 우위성을 보이는 변신 양상과 같이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事物 變身型’ 중 사물화의 미약성은 산화계 轉移보다 민감하게 변신 설화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이다.

신화계 변신 설화와 전설계 변신 설화의 변신 형태에서 나타나는 전이화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表 4〉 神話系와 傳說系의 轉移의 特徵

구분 작편	가해자	변신물	변신형태	변신물성격	변신모티브	결 과	기 타
자료 11	허좌수	큰 뱀	청비둘기	神格의 즉물성	도피(보복)	죽음·패가	허좌수를 같이 모심
자료 73	이형상	구렁이	뽕	//	도피(은신)	별로 없음	덕수리 마을 명칭 유래

31) 玄吉彦, 前掲論文(註 11), pp.54-55.

‘자료 11’은 ‘禮村本郷堂 본풀이’인 神話系 說話에 해당하며 呪術的 경향과 神格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즉, 人間과 神의 대극적 관계에서 神의 우위성으로 인간이 패배를 맞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자료 73’의 神格화된 변신 주체는 인간에게 패배를 당하여 ‘逃避 모티브’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神話的 요소의 미약으로 x(→) 방향인 (B) 세계로 전환, ‘神話→傳說’로의 轉移化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民譚系 變神 說話에서 나타나는 변신양상의 특징은 ‘人間 變身型’에 해당하는 人間化의 變轉 형태가 평범한 민중 생활에 대한 허구적, 과장적 성격을 내포하여 사건 내용에 대한 극적 전환의 구조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게 한다. 또한 人間化 변신 모티브의 기능은 肯定性이 강함에 비해 動物化 변신 모티브의 기능은 否定性이 강하다. 이러한 변신 양상의 성격은 민담계 변신 설화에 민중 생활이 반영되면서 善과 惡의 양면적 의식 세계를 表出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人間≤動物’ 변신화에서는 否定性이 강한 惡 意識으로, ‘人間>動物’의 변신화에서는 긍정성이 강한 善 意識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만큼 민중의 집단적인 생활 태도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倫理的, 敎訓的 의미 기능의 모티브가 강하게 내포된 결과일 수 밖에 없다.

또한 ‘動物 變身型’ 중의 人間化(74%)에서 나타나는 ‘동물→인간’의 관계는 사건 내용이나 극적 구조 형성은 물론 변신 주체 및 내용의 變異性도 포함되고 있다. 본 도 변신 설화에 20 회로 나타나는 ‘여우’의 화소 선택은 他 動物 變身 比率와 비교할 때 59%를 차지한다. 이러한 動物 變身 모티브에서 여우가 선택됨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本島 變身 說話가 本土 說話와의 교류적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例話 3(자료 38)’

- 1) 강정승이 빨래하는 여인(여우)과 관계하여 아들 강감찬을 낳는다.
- 2) 백두산 천지에서 삼천년 묵은 개구리가 사람이 되어 어느 정승의 딸과 결혼한다.
- 3) 강감찬은 신랑(개구리)를 퇴치하여 신부 뱃속에 있는 개구리 알을 제거한다.

- 4) 어느 잔치 집에서 남대문에 있는 팔죽 장수 할머니(호랑이)와 중(호랑이)을 불러 오게 하고 희귀 변신 시킨 후 쏘아 죽이게 한다.
- 5) 장안의 개구리 소리와 모기 소리를 못내게 한다.

‘例話 4(자료 26)’

- 1) 옛날 한 과부가 자매를 데리고 산다.
- 2) 호랑이가 남자로 변하여 과부를 유혹하자 따라가 버린다.
- 3) 자매는 산중에서 어머니를 찾았으나 동생은 죽고 언니는 나무 위로 도망간다.
- 4) 언니는 하늘의 도움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호랑이는 바다에 빠져 죽는다.

‘例話 3(자료 38)’의 4) 단락소와 ‘例話 4(자료 26)’의 2) 단락소에서는 ‘호랑이(動物化 人間)’가 등장한다. 또한 ‘例話 3’의 4) 단락은 성현의 慵齋叢話 제 3권 첫머리에 나타나는 내용 중의 變異型으로도 볼 수 있다.³²⁾ 그리고 5) 段落素의 내용은 손진태님의 설화에도 수록된 변이형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說話이다.³³⁾ 물론 설화 내용의 주체자에 대한 영웅적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異交 과정으로 출생시키는 모티브나, 괴물퇴치 내용의 變異 挿話 內容은 민담계 설화의 興味性이나 民衆性을 내포한 것이다.

‘例話 4’의 호랑이 변신 출현도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日月 傳說’에 해당한다.³⁴⁾ 成者說님도 本 民譚系 說話를 韓國, 中國, 日本과의 비교 연구한 바도 있으나,³⁵⁾ 본고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變身 話素가 아니라 직접 출현과 동시에 人格化 된 ‘誘惑 모티브’가 내포된 단락은 3)과 4) 단락소이다.

‘나무로 올라 도피하고, 위기에 빠지자 하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인 공은 구제되며 호랑이는 떨어져 죽는다’는 發展 및 解決部의 구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本 島

32) 大東野乘 卷之一; …僧叩頭謝罪。尹大處曰。判官誤耶。僧豈虎乎。邯鄲曰。汝可化形。僧咆哮一聲。化一大虎。仰攀欄楹。聲振數里。尹魂喪化地。邯鄲曰可止。虎驕然復其形。頂禮而去 ……〈慵齋叢話卷之三〉。

33)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韓國文化叢書 第一輯 (乙酉文化社, 1982), pp.78-80 에서 ‘(21) 姜邯鄲 禁蛙喧傳說’ 참조.

34) 孫晉泰, 上揭書, pp.155-158. ‘(5) 朝鮮의 日月傳說’ 참조.

35) 成者說, 「韓日民譚의 比較研究」(一潮閣, 1979), pp.180-187.

의 설화에서는 ‘수숫대나 모밀대가 꾀로 물들었다’는 내용이나 ‘주인이 하늘에서 해, 달, 별 등이 되었다’는 由來 모티브의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설화가 전승, 수용되는 과정에서 전설적 기능이 약화되어 x(-)인 (B) 세계 속으로 轉移된 것이다.

여우와 호랑이의 변신 주체 성격은 거의 부정성을 띤다. 이것은 濟州의 地理的, 歷史的 不毛性을 설명해 주는 합리화의 의식 경향이라고 할 수도 있다.³⁶⁾ 또한 民譚系 變身說話에서는 ‘植物類(7%), 精靈類(2%), 事物化(2%)’의 변신 양상이 소극적인 挿話 기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민담계나 전설계 변신 설화의 전반에 나타나는 변신의 誇張性, 虛構性임과 동시에 민중의 자연스러운 생활의 사고 작용으로 傳承, 受容 과정에서 설화가 하나의 문학적인 특징이 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6) 玄容駿, 「濟州島 傳說」 (瑞文堂, 1977), p.17-18 의 ‘아흔 아홉 골’ 참조.

Ⅲ. 濟州島 變身說話의 類型

1. 變身 誘惑型

本島나 本土의 說話에서 動物이 人間 형태로 變身되는 動物譚은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本島 變身說話에서는 動物 變身 내용 중에 ‘여우’가 本土의 動物 變身に 나타나는 종류보다 두드러짐을 볼 수 있으며³⁷⁾ 이러한 變身 樣相은 傳說系, 民譚系 變身 說話에 골고루 分布되어 있음은 上記한 바와 같다.

‘例話 5’ (자료 24)

- 1) 옛날에 무남발 이좌수가 살았는데 중문까지 말을 타고 다닌다.
- 2) 하루 저녁은 말을 타고 가는데 개왓떼기(地名)에서 곱고 젊은 부인이 같이 가기를 원한다.
- 3) 여인을 말 위에 태우고 총배로 묶은 다음 집으로 달려와서 개를 부른다.
- 4) 개가 여인을 물어 죽이니 꼬리 9개인 황여우로 변한다.

‘例話 6’ (자료 19)

- 1) 애월읍 하가리에 안영장이 목사에게 바칠 사슴 사냥을 가게 된다.
- 2) 열희홀(地名)에 도착하여 사슴을 기다리는데 아이업은 부인이 나타나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한다.
- 3) 지금 이 시간에 부인이 올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활로 쏘아 죽인다.
- 4) 부인은 꼬리 3개 달린 여우가 되고 그 후 사슴을 잡아 돌아와서 영장 직책을 받게 된다.

37) 李相日, 前揭論文(註4), p.110의 도표에서 변신물의 순서는 ‘뱀, 여우, 호랑이…… 나타나 있음’을 참조할 것.

‘例話 7’ (자료 27)

- 1) 조선조 한림읍 명월리에 명의 진좌수가 살았는데 어릴 때는 10 리 밖 서당에 다닌다.
- 2)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처녀가 불러 기와집에 들어가서 입으로 구슬 놀이를 한다.
- 3) 매일 계속되는 동안 진좌수는 얼굴이 수척해지자 스승이 사실을 알고 해결책을 가르쳐 준다.
- 4) 다음날 구슬 놀이를 할 때 구슬을 삼키니 기와집이 없어지고 처녀는 여우로 변하여 달려들 때 스승이 구해 주었는데, 그때 사람만 보게 되어 명의가 된다.

이러한 ‘人間化 動物’의 변신 양상은 주로 ‘誘惑 모티브’에 의해 能動的이며 積極的인 자신의 변신을 도모하는 自意 變身³⁸⁾으로 나타나서 사건을 전개시키다 변신물의 정체가 탄로되거나 영원히 밝혀지는 계기에 의해 循環 體系의 回歸 변신³⁹⁾으로 해결된다. 이것은 변신물의 죽음과 연관되어 ‘동물<인간’의 관계가 고수되어 원형으로 回歸 과정이 발생됨과 동시에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 變身 誘惑 모티브로 설정된 변신물의 주체는 ‘여우(자료 16 - 25, 27 - 32)와 호랑이(자료 26)’로 크게 구분된다. 상기한 바도 있으나 이 변신물의 주체는 모두 否定性을 띠지만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 약화된 상태로 전환한다. 그 중 ‘자료26’에서 호랑이의 변신은 인간에 대해 유혹과 죽음을 포함한 적극성을 띠는 내용으로 형상화 된다. 그러나 여우의 변신은 단순한 誘惑 기능만을 부여하여 인간은 유혹 직전에 변신 주체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고 변신물의 原型을 제시하고 있다. 原型이 드러남은 곧 죽음이며 이것은 인간과의 직접적인 대립에서 주인공 자신의 직접 능력으로 回歸 變身시키는 解決 構造 體系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와 주인공은 변신 주체의 정체만을 파악할 뿐, 原型을 제시해 주는 援助 形態(주로 ‘개(犬)’)가 등장하여 간접적으로 變身 回歸시키는 형태로 나누어 진다. 전자를 「直接 對立 回歸 變身型(자료 16 - 19)」이라 하고, 후자를 「間接 對立 回歸 變身型(자료 20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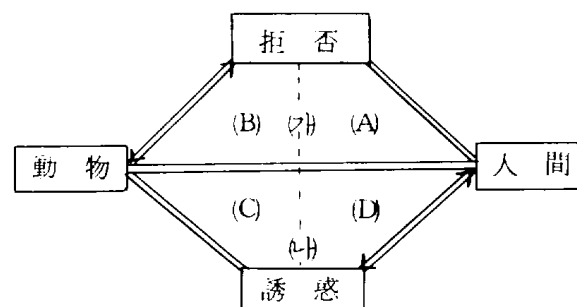
38) 李相日, 上揭論文, pp.116-118.

39) 李相日, 위와 같음.

이라는 下位 類型으로 분류도 가능해지며, 이때 공통적인 성격은 변신 주체가 거의 죽음으로써 原型을 드러내는 점이다.

또한, 변신 주체인 動物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動物 \geq 人間’의 대립 관계를 보여주는 설화가 「誘惑 同化型(자료 26)」이다. 이때 변신 주체의 행동은 유혹에 성공하여 ‘動物 \geq 人間’의 관계를 成立시키고 있으나, 지속적 형상화의 약화로 결국은 原型이 탄로와 함께 인간에게 肯定的인 결과를 부여해 주는 「變身 回歸 能力 附與型(자료 27 - 32)」의 대표형이다. 즉 인간의 존재성도 그 자체로는 인간 이상이 아님을 인식하고 어떤 超越者 또는 超越的 要素가 있어야 함을 느껴 變身 主體(여우)에게 ‘구슬’을 받는 것으로 合理化시키고 있다. 이것은 초월적인 능력 부여를 변신 주체에게만 획득한 결과로 정당화하여 평범함과 엄연히 구별하려는 설화 민중의 의식에 대한 형상화 과정이다.

〈圖 2〉 誘惑 모티브의 性格



‘圖 2’에서 (가)의 세계는 ‘動物 \leftarrow (拒否) \rightarrow 人間’의 관계로 결국 「誘惑 모티브」의 약화에 대해 變身物은 回歸이 이루어져서 ‘動物 \lt 人間’의 관계가 되고, (나)의 세계는 ‘動物 $=$ (誘惑) $=$ 人間’의 관계로 「誘惑 모티브」의 강화에 의해 상대자는 同化가 이루어져서 ‘動物 \geq 人間’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가)의 (A)부분은 변신 양상에서 「誘惑 모티브」의 기능이 인간에 의해 直接的인 回歸 過程을 보이는 것이며, (가)의 (B)는 원조 형태와 대립을 형성하여 간접적인 결과로 回歸過程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가) 세계의 특징과 전혀 다른 것은 (나)

의 세계이다. 그 중 (C)는 완전히 同化된 상태로서 ‘動物 \geq 人間’의 형상화로 나타나지만 설화의 전반 내용의 ‘動物-誘惑’ 관계는 상대자와의 拒否(자료 26의 ‘언니’)에 의해 回歸 過程(D)이 나타나서 변신 주체는 죽음을 맞는다. 그러므로 ‘人間-유혹’의 관계도 拒否의 援助 形態(자료 20-25의 ‘개’)에 의해 回歸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자는 일반적이며 평범한 능력에서 초월적인 기능을 부여받는 것처럼 動物 變身 說話가 傳說, 民譚系에 주로 분포되는 것은 超自然的인 능력 수용이 훨씬 자유롭고 人間과 다른 動物과의 교유가 거의 제한되지 않는다는 原初 思惟와도 관계가 깊은 것이다.

2. 變身 應報型

‘例話 8’ (자료 37)

- 1) 옛날 어떤 시아버지가 병이 나자 백약이 무효다.
- 2) 점을 치니 손자를 삶아 먹어야 한다고 했다.
- 3) 며느리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가마솔에 넣어 삶고 있는데 진짜 아들이 돌아 온다.
- 4) 가마 솔에 들어 있는 것은 산삼이고 시아버지는 병이 낫게 된다.

‘例話 9’ (자료 39)

- 1) 옛날에 불경을 열심히 암송하는 시어머니와 불경을 싫어하는 며느리가 같이 산다.
- 2) 시어머니가 불경을 잊게 되자 며느리는 ‘뒷집의 김서방’이라고 가르쳐 준다.
- 3) 시어머니는 ‘뒷집의 김서방’이라면서 열심히 암송하다 극락으로 간다.
- 4) 며느리는 벼락을 맞아 구렁이가 되어 지옥으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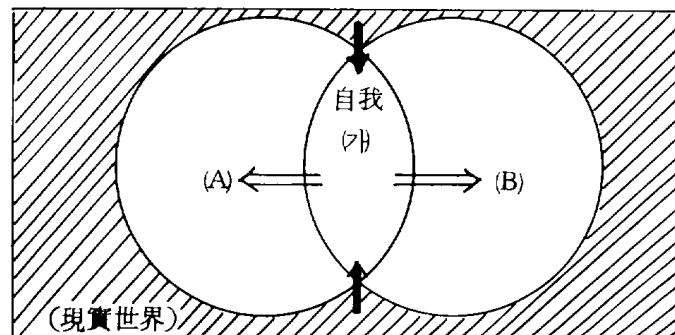
‘變身 應報型’에 해당하는 변신 설화는 모티브의 기능이 解決 構造 體系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變身 주체는 사건 전개 核心 話素로 등장하기도 하고(자료 34, 35, 37 - 44), 보조적인 挿話 話素로도 등장한다.(자료 33, 36). 또한 변신 주체들의 변신으로 인한 결과는 일정한 성격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도 파악된다.

‘例話 8’과 같이 肯定的 결말을 형성하는 解決 構造 體系는 ‘昇天(자료 33), 悔改(자료 34), 報恩(자료 35), 孝道(자료 36, 37, 38)’ 등의 변신 모티브에 의한 유형이며, ‘例話 9’과 같은 否定的인 解決 構造 體系를 형성하는 유형은 ‘不孝(자료 39), 怨恨(자료 40), 復讐(자료 41, 43)’ 등의 모티브로 형상화 된다.

이때 변신 모티브의 主題 내용은 ‘善과 惡’이다. ‘자료 41’만 제외하면 거의 민담계 변신 설화에 해당하므로 내용 역시 평범한 민중 생활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導入部〉단락을 지나면 〈展開部〉단락에서는 兩面的 性格으로 사건이 형성되면서 선택의 여지가 나타난다. 그 선택은 주인공의 의지가 첨가되어 있으나 獨自性은 거의 없다. 반드시 상대적인 話素에 의해 결말까지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양면성은 곧 肯定的 善意識과 否定的 惡意識이다.

발단의 평범성은 결말 구조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의 생활 의식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肯定型의 변신 주체나 상대자와의 관계는 고난, 투쟁 발전 단락에서 ‘믿음의 행동, 배추, 여우, 백발 할머니, 산삼’ 등의 話素에 의해 ‘婚姻(자료 33, 35), 幸福(자료 34, 36, 38), 治病(자료 37)’ 등의 肯定的인 해결 구조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변신 주체나 상대자가 ‘죽음(자료 39-42), 패망, 몰락(자료 43), 소멸(자료 44)’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변신 모티브에 의해 否定的 해결 구조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반드시 因果의 형태에 의해 나타나는 應報的 기능을 내포함과 동시에 민중 생활의 도덕적 요소와 함께 敎訓性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圖 3〉 現實世界에 대한 自我의 單一化 過程



‘圖 3’에서 보듯이 민간 전승 집단의 내면에는 양면성(A, B)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自我는 바로 생활과 의식의 복합적 응결체로 잠재되어 있으므로 현실 세계에서 自我는 己의 세계에서 응결되어 外部世界の 모든 要素를 受容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現實, 理想, 生活, 刺戟 등에서 탈피하려는 意識의 몸부림과 己의 세계에서 외적 또는 내적 투쟁에 의해 (A) 또는 (B)로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즉 양면적 성격이 단일성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이때 선택된 결과는 상대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A)의 세계가 ‘蘇生, 成功’ 등의 肯定的 성격을 띠는다고 할 때 (B)의 세계는 否定的인 성격으로 나타나서 ‘죽음과 敗亡’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기에 (A)의 世界를 選擇하려는 民衆의 意志는 「變身 異物 獲得型」에서 나타나는 ‘善과 惡(成功과 敗排)’보다 더욱 강한 유형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3. 變身物 退治型

‘例話 10’ (자료 50)

- 1) 옛날 어떤 사람이 무지개 꿈을 꾸어 처녀(여우)와 관계하고 아들을 얻는다.
- 2) 그 아들은 홍역으로 얼굴이 엷었으나 부친과 함께 어느 잔치집에 가게 되었다.
- 3) 그는 신랑을 보고 본색을 드러내라 하니 신랑은 구렁이로 변한다.
- 4) 신부를 숯불 위의 시루에 걸터 앉게 하니 뱀 새끼가 시루 가득 나온다.

‘例話 11’ (자료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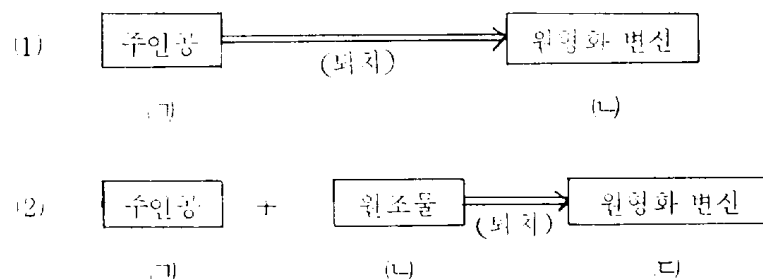
- 1) 옛날 과부의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신랑으로 변한 쥐에게 쫓겨 난다.
- 2) 예나라로 가서 살다 복수하기 위해 돌아오면서 절간에서 고양이를 얻게 된다.
- 3) 집에 와서 고양이를 쥐 앞에 놓으니 쥐를 죽이고 신부의 배를 눌러 쥐새끼까지 잡아 먹는다.
- 4) 아들은 신부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예나라로 가서 행복하게 산다.

본 유형에 해당하는 變身 主體는 ‘병(자료 45), 여우(자료 46, 47, 50, 53), 지네(자료 48), 구렁이(자료 49, 50), 쥐(자료 52, 54), 개구리(자료 53), 부

적(자료 55)’ 등의 話素로 표출된다. 이러한 變身 主體는 형태상으로 볼 때 動物類와 事物類 중 動物類의 變身 樣相이 우위에 설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신 양상이 실와 내용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때는 肯定的인 면을 띠고 있으나, 주인공과 對立的 관계로 變身 樣相을 보일 때는 否定的인 성격으로 나타나므로 본 유형에 해당하는 變身 주체자도 양면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肯定的인 기능을 하는 변신 주체는 ‘명(자료 45)과 여우(자료 50, 53)’이며 否定的인 기능을 하는 주체는 그 나머지가 된다. 그러므로 ‘자료 45, 50, 53’에서는 출생 형태가 하나의 挿話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45’에서는 「事物 破壞 神童 出生」에 해당하는 모티브가 ‘자료 50, 53’은 「異物 交構 出生」 모티브에 해당한다. 이때 등장하는 여우의 변신 話素는 肯定的인 기능에 의해 「變身 交構 出生型」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사전 解讀 단락에서는 상대자의 치치 능력을 부여받아 여우의 動物 話素와의 交構 出生 모티브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挿話的인 모티브의 단순성에서 탈피한 내용 전반에 해당하는 성격으로 보아 본 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變身 主體의 否定性을 退治하는 變身 모티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해진다. 이 점은 變身 主體와 主人公의 대립에서 變身物 退治의 의지 및 태도에 따른 것이다. 즉 能動的인냐의 관계로 보아 ‘例話 10’은 「變身物 自力 退治型(자료 44-50)」으로 전자에 해당하고, ‘例話 11’은 「變身物 援助 退治型(자료 51-55)」으로 援助物 後者에 해당한다.

〈圖 4〉 退治 모티브의 類型



‘圖 4’에서 (1)의 (나)은 超越的인 기능을 부여 받아서 出生되는 모티브에 해당하

여 변형적인 출생 과정을 삽입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신주체가 모두 남자로 등장되고 있는 것은 주로 「婚姻과 異交 모티브」에 의한 사건 전개 양상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자료 48 - 54). 또한 (2)의 (나) 話素는 ‘자물쇠(자료 51), 절간의 고양이(자료 52, 54), 삼죽구(자료 53), 부적(자료 55)’ 등으로써 宗教的이며 呪術的 原初 信仰意識까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퇴치에 대한 완전성은 후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자료 48, 49, 52, 53’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데 이 점은 「斷脈 모티브」로 형성화 된 「고종달 형」의 逃避 隱身 모티브와는 달리 「追跡, 湮滅 모티브」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김통정 형」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유형에 해당하는 「退治 모티브」의 유형들은 거의 民譚系 變身說話系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 54’는 해결 구조 체계에서 일종의 속담적인 성격을 내포하여 민담계 설화가 전설계 설화로의 逆轉移化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4. 變身 由來型

‘例話 12’ (자료 58)

- 1) 옛날 난산리에 효도가 극진하지만 가난한 총각과 그 이웃에 부잣집 딸이 산다.
- 2) 총각은 처녀를 본 후 효도를 게을리 하자 어머니는 죽으면서 원망과 저주를 한다.
- 3) 소분이 나자 처녀는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총각과 함께 마을을 떠나려 한다.
- 4)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벼락을 맞고 둘이는 각각 바위와 산으로 변한다.

‘例話 13’ (자료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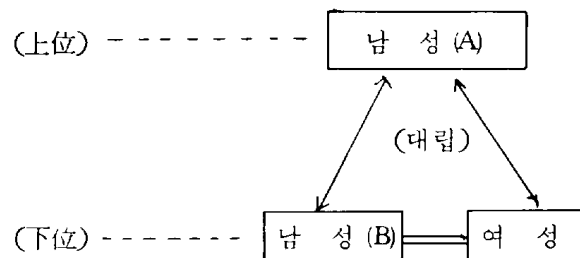
- 1) 옛날 오조리 불미술에 부씨 머슴과 그 이웃에 옥녀가 사랑한다.
- 2) 그 마을의 조방장이 옥녀를 첩으로 삼기 위해 머슴을 죽여 버린다.
- 3) 옥녀는 수청을 거부하여 쫓겨난 후 머슴의 시체를 찾아 장사 지낼 준비를 하다 통곡을 한다.

4) 울다 쓰러지자 옥녀는 식산봉으로, 옥녀의 눈을 창궂돌로, 시체는 장시머들로, 관은 일출봉으로 변한다.

본 유형의 특징은 ‘不孝(자료 56 - 58), 愛情 坐絶(자료 59 - 60), 理想 成就 坐絶(자료 61), 不倫 悔恨(자료 62), 怠慢(자료 63)’ 등의 모티브에 의해 해결 구조 단락에서 由來의 機能이 부여된 變身 樣相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모티브의 성격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표출되어 거의 절설계 변신 설화에 해당하는 解決의 證示的 要素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 물론 ‘자료 63’에서는 動物의 생태적인 외형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 생활의 가장 근본적 倫理 意識을 형상화하는 敎訓的 성격이 강함을 고려할 때 이것은 傳說系의 證示的 기능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변신물의 형태가 거의 ‘事物化(바위, 들, 산 등)변신’으로 나타나는 점은 사물의 속성과 민중의 傳承 意識과의 관계로 보아 他 口碑文學의 특성과 같다.

특히 「愛情 挫折 모티브」로 형상화된 내용은 대체로 삼각 구조 체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 체계에서 표출되는 恨의 성격은 민중 생활에서 여성적 정서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圖 5〉 由來型的 葛藤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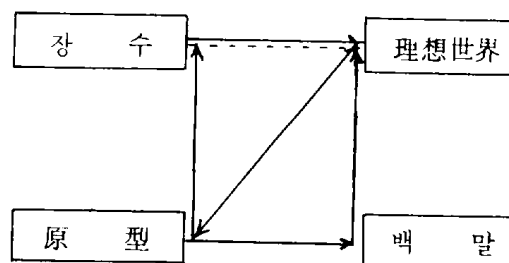


‘圖 5’에서 보듯이 ‘男性(A) ↔ 男性(B)’, ‘男性(A) ↔ 女性’의 대립 관계에서 표출되는 정서는 恨이다. 그러나 ‘남성(B) = 여성’의 호응 관계는 이와 상반된 성격으로 형상화 된다. ‘남성(A)’는 권력자의 강한 성격에 대한 형상이며, ‘남성(B)나 여성’은 서민적 집단의 나약한 성격에 대한 형상화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서 표

출되는 恨은 언제나 갈등, 대립으로 전개된다. 즉 恨의 형상은 해결 구조 단락에서 永遠, 無變化, 固定的인 事物로 나타나며 이것은 인간의 理想과 來世觀을 지향하는 설화 의식의 표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愛情 挫折의 變身 모티브」는 怨恨에 의한 변신 양상으로 형상화 되어 ‘男性(A)’에 대한 애뜻한 절개 보다도 利己的, 暴力的, 強壓的이고 무분별한 상위층에 대한 庶民的인 강한 의지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 58’과 같은 맹목적인 애정은 전승 집단에 否定的인 수용 태도를 취하게 한다. 즉 남성과 여성의 貧·富 차이는 설화의 劇的 構造 연결에 풍부한 재료를 제공하는 부차적인 話素로써 작용하는 것이고, 변신으로 인한 主題的 意味에는 애정에 앞서 孝의 개념을 우선하고 있다. 그러므로 由來的 證示 기능은 인류 사상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 대한 懲戒의 표식으로 그 民衆 集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고정시킨 동기가 되는 것이다. ‘자료 61’에서 나타나는 對立的 機能도 強者と 弱者의 對立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약자의 가난, 비탄 등의 나약성에서 탈피하려는 上向 意識과 강자의 抑制 意識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圖 6〉 對立 樣相



‘圖 6’에서 보듯이 ‘백말’의 上向 意識은 ‘장수’의 抑制 意識에 의해 끌어 내려지고 원형의 상태 변화는 永遠性 追求에 대한 잔영으로 남게 된다.

또한 ‘자료 47’에서 보이는 머느리와 중과의 「不倫 모티브」의 형태도 단순한 성격을 벗어나서 성적 충동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각시 바위라는 변신물의 명칭 부여는 成就 意慾에 대한 破壞的인 民衆의 본능을 倫理的인 개념으로 抑制시키려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본 유형화의 「怠慢 모티브」로 형상화된 변신 설화는 민중생활에 대한 윤리적 의

미의 표출로써 도덕적, 可視的, 周邊的, 消極的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愛情, 理想 挫折 모티브」로 형상화 되면서 현실을 탈피하려는 上向意識 및 成就意慾과 현실적인 倫理性이 복합되어 나타난 변신 설화가 ‘자료 62’의 「不孝 모티브」에 의해 형상화된 것이다. 이만큼 개인적이며 자발적인 의지적 표출을 강화시킨 점이 본 유형의 특징이다.

5. 變身 逃避 隱身型

本 島의 설화 중에 「斷脈 모티브」로 형상화된 본 도의 自生的 변신 설화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斷脈은 단순한 呪術, 民間 信仰的인 概念으로만 이야기되어 온 것이 아니라 본 도에 특별한 인물이 거의 없다는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진 실정을 풍수 사상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민중의 설화 의식도 내포되어 自我와 대립 관계에 있는⁴⁰⁾ 외부적인 제반 요소와 투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극복으로 나타나는 自我 擴大 및 信仰으로 島民의 不敗的 信念까지 드러난다. 이러한 「斷脈 모티브」로 형상화된 대표적인 유형이 「고종달형 변신 설화」이다.

현길언님은 고종달형 설화를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여기서 변형된 하위 유형을 4가지로 첨가하여 다음과 같이 대표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⁴¹⁾

- ㄱ) 중국 진시황이 秦二世가 人傑(왕)의 날 地勢임을 알았다.
- ㄴ) 人傑이 나지 못하도록 高宗달을 파견했다.
- ㄷ) 제주에 온 그는 여러 곳의 地穴을 뚫어 버렸다.
- ㄹ) 그 결과 제주에는 生永도 나지 않고 主도 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 유형으로 되어 있는 설화 각 편은 ‘자료 64 - 72’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 ‘자료 66’이 위에 제시된 유형과 접맥된 내용이지만 해결 구조 체계에서 ‘행기물’ 變異 話素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각 편도 공통 유형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ㄱ)의 ‘제주’는 自我로서 本 島

40) 玄吉彦, 前掲論文(註16), p.152.

41) 玄吉彦, 위와 같음. 유형 인용 중 가점은 필자가 함.

민임과 동시에 ㄷ)의 ‘地穴’은 곧, 神으로 보아 島民들은 자신들과 운명을 같이 해야하는 神을 동일시 하고 있다. 이때 神은 주로 ‘水神과 堂神’으로 나타나지만, 傳説系 變身 說話에는 그 중에서 ‘水神’이 단연 우위에 서게 된다. 이점은 제주도의 風土性에 비추어 물은 島民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해안가를 돌아다니며 솟아나는 생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風水 思想과 연관시킨 점이라 할 수 있다. 장수 설화 유형에서 神格으로 나타나는 인물은 초능력을 부여 받고 있으나, 변신 주체는 거의 대부분 수신으로 형상화 되어 나타난다.

또한 濟州와 地穴도 同一性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對立과 葛藤을 형성하는 화소는 ㄴ)의 ‘고종달’이다. 외세에 대한 자아 능력의 한계는 나약한 존재의 피해자로 형상화 되어 외부적인 세계와 가해자로서의 강력한 존재에 대한 투쟁의 방법은 ‘逃避’만이 허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 逃避나 隱身에 대한 運命論的인 生活觀이 섬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운명에 도전하는 강인한 抵抗 精神은 끊임없이 외세와 대결하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逃避나 隱身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은 직접적인 투쟁 방법은 아니지만 강한 의지의 표출로써 ㄷ)의 ‘치혈을 끊어 버렸다’가 아닌 ‘천부 끊치 못했다’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세에 대한 鬭爭, 葛藤은 「逃避 隱身 모티브」에 의해 ‘神≦人間’의 관계가 형성되고 내용면에서도 성공적 해결 구조 체계를 이룬다. 이때 나타나는 神格의 卽物化는 ‘어떤 사람(자료 64), 노인(자료 65), 할머니(자료 67), 처녀(자료 68)’의 人格化 변신 형태와 ‘흰 개(자료 69)’ 등의 動物化 변신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變身 逃避 隱身型」은 神話系 성격 x (+)에서 傳説系 성격 x (-)으로의 轉移化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래도 神話的 요소가 부여된 것은 ‘자료 70, 71’로써 神의 목소리만으로 精靈化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무형체화 逃避 隱身 형태이다.

이 중에서 精靈化의 變身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료 72’로서 鬼神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고종달형 변신 설화의 「變身 逃避 隱身型」은 본 도민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敗北主義的 觀念의 殘在가 아니라 주어진 운명을 타개해 나가려는 발버둥이며 새로운 삶의 방법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도전을 시도하는 삶의 진지성⁴²⁾ 보여 주고 있는 자생적 성격이 강한 변신설화이다. 이러한 생활 의식으로 구현된 변신의 誇張性과 虛構性은 하나의 文學的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惡魔 退治 隱身型(자료 74)」의 변신 주체자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가해자의 입장은 변신 기능으로 하여금 약화된 상태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 유형은 本土의 地下國 大敵 除治 說話와 공통점이 많은 變異型으로 볼 수도 있다. 손진태님은 몽고의 大敵 除治 說話와 비교하여 유사점을 7가지로 묶고 있으나⁴³⁾ ‘자료 74’와 비교하면 1) 항목의 대적의 위치가 지하에 있는 점은 공통적으로 내용면에서도 유사한 完全 變異 및 轉移化 된다.

〈表 4〉 모티브와 話素의 變異性

구분 각편		주인공	반공자	투쟁 장소	변신양상및 모 티 브	피구원자	원조형태	퇴치방법	결 과
손	대구	한 량	아귀	지하국	한 량 - 무변화	부자의딸	까 치	목을자름	결혼함
	춘천	무 사	대적	지하국	무사→수막(은신)	세강주	산 신	목을자름	결혼함
자료 59	세자매	새	굴 속	세 자매→파리(은신)	식구	백발노인	불태움	장사지냄	

‘表 4’와 같이 주인공이 大敵을 퇴치하는 主題의 意味는 共通點이지만, 本島 說話는 本土에서 轉移, 變形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때 ‘손(대구) 형’의 ‘植物 變異化’와 ‘자료 74’에서 ‘動物 變異化’는 그 주 모티브가 隱身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료 75’는 ‘자료 59(愛情 挫折 怨恨型)’에 대한 變異型으로 나타나는 변신 설화이다. 주인공으로서 神格이 人格化되고 있음도 미래의 상황을 예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일치시키기 위한 민중의 설화 의식을 반영하여 ‘神→人間→새’의 循環的 변신 기능을 부여하여 한 편의 설화 형

42) 玄吉彦, 「제주도의 장수설화」 (弘盛社, 1981), p.70

43) 孫晉泰, 前掲書(註 33), pp.106 ~ 133 참조.

태를 형상화하는데 무리없는 合理化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變身 逃避隱身型」은 神格의 변신 형태와 人格의 변신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는 ‘神≦人間’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형태임과 동시에 本島의 自生 說話 형태로써 도민의 의식성을 내포하며, 후자는 평범성에서 超越的 能力을 부여하여 本土 설화와 脈을 같이 하는 변신 형태의 「隱身 모티브」양상으로 轉移化된 흥미 위주의 민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6. 變身 鬭爭 내기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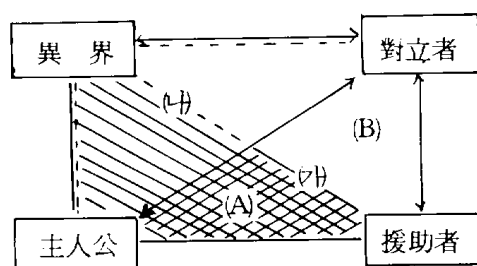
本島의 설화 중의 변신물이 투쟁과 내기 모티브에 의해 주인공에 대한 援助者 役割로 나타나는 변신 설화는 풍부하지 못한 셈이다. 또한 주인공의 自力에 의한 변신은 투쟁 내기의 변신 모티브가 약화되어 그 변형인 시험 단계로 나타나서 주인공의 실패를 맞게 되는 유형이 그것이다. 이것을 투쟁 내기의 변신 모티브의 결과에 의한 내용으로 분류할 때 「援助 成功型(자료 76, 77)」과 「自力 失敗型(자료 78)」이라는 대조적인 하위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해진다. 援助 成功型은 「鬭爭과 내기의 모티브」가 強者和 弱者の 관계에서 성립한다. 또한 변신 주체는 거의 ‘女性’(자료 76 - 선녀, 자료 77 - 용녀)’으로 나타나며 주인공의 입장에 선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인공이 여성을 얻어서 같이 살게 된다.
- 2) 반동 인물이 나타나서(자료 76 - 옥황의 오장신장, 자료 77 - 관원) 여성을 뺏으려 한다.
- 3) 투쟁과 내기에서 여성의 도움으로(자료 76 - 모기 변신, 자료 77 - 파리 변신) 승리한다.
- 4) 여성을 뺏기지 않고 행복하게 같이 산다.

‘자료 76, 77’도 4단계 구조 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자료 76’에서는 투쟁과 내기에 임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자료 77’에서는 소극적인 수용자세로 임한다. 투쟁 내기의 형태는 ‘바둑 두기(자료 76, 77), 강털 내기(자료 77),

싸움하기(자료 77)’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변신양상은 單一變身(자료 76)과 複合變身(자료 77)으로 나타나서 각각 승리의 해결 구조체계로 형상화 되는데 人物과 狀況과의 관계를 圖式하면 다음과 같다.

〈圖 7〉 鬭爭 내기 모티브의 對立 樣相



‘圖 7’에서 (A)는 肯定的인 同類化로 보고 (B)는 否定的인 反類化 樣相으로 볼 때 대립 갈등은 필연적일 수 있다. (가)의 구조 속에는 사건을 해결하는 單一援助 변신 물이 나타나며(자료 76), ‘자료 77’은 복합 원조 변신 삽화를 첨가시켜 事件을 (나)까지 확대 이동 시킨다.

이 점은 변신 설화 내용이 傳記的 要素의 첨가로 内容에 대한 興味性을 더욱 고조시켜 民譚系 說話로 이동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료 77’은 螺中 美婦 說話⁴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민담계 변신 설화 내용으로 전승 과정에서 변형 전이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김현용님은 ‘螺中 美婦 說話’를 두 가지 형태 (가, 나)로 보고 ‘나형’이 이 설화의 대표적 유형으로 보고 있다.⁴⁵⁾ 그것을 요약하여 ‘자료 77’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 형)’

- 1) 옛날 노 총각이 고동을 얻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다.
- 2) 고동은 색시로 변하여 결혼하고 같이 살았다.
- 3) 색시는 남편 대신 밭일을 나가다가 현관에게 붙들려가게 되었다.

44) 孫晉泰, 上揭書, p.37의 내용을 참고할 것.

45) 金 龍, 「螺中 美婦說話 形成考」 (국어국문학 55-57合), pp.190-193.

4) 남편은 자살하여 청조가 되고 아내는 참빗으로 변했다.

‘예화 14’ (자료 77)

- 1) 옛날 노총각이 예쁜 고기를 낚게 된다.
- 2) 고기가 색시로 변해서 같이 살게 된다.
- 3) 관가에서는 소문을 듣고 내기를 하여 색시를 뺏으려 한다.
- 4) 색시의 변신과 용왕의 도움으로 승리하여 둘이는 왕과 왕비가 된다.

위의 段落素에서 2) 단락은 動物이 人格化 변신으로 4) 단락은 鬭爭 내기의 變身 모티브로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이 총각이고 變身 主體는 색시로 나타나며 서로는 同一化의 性格으로 形象化되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變異的인 話素로 나타나는 것은 ‘색시(고동, 예쁜 고기)’, ‘관가에 알려짐(발일, 소문)’ 등이다.

이러한 變異的 形態에서도 해결 단락 구조는 肯定的 성격(자료 77)과 否定的 성격(나형)으로 나타난다. 즉 전자는 ‘총각, 색시→왕, 왕비’의 變異로 결말의 「幸運 모티브」에 의해 민담계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남편→청조, 부인→참빗’의 解決 段落素의 변신 형태로 비극적인 잔존 요소인 전설계 설화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나형은 對立, 葛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소극적 결과의 비극으로 변신 양상을 보이나, ‘자료 77’ 형에 나타나는 도전의 소극적 불가능성은 색시의 변신과 용왕의 援助 形態에 의해 積極的인 자세로 전환된다. 이러한 變異型은 인간의 나약성을 補完하려는 挿話 부분이기는 하나 風土的인 不利한 與件, 試鍊 등에 임하면서도 결코 挫折할 수 없는 不敗의 信念을 안고 있는 島民의 설화 의식으로 기능의 초월적 성격이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내용의 單純性에서 複雜性으로 변화되는 민담계 변신 설화의 轉移化인 것이다.

변신물에 의한 원조 형태가 해결구조 체계의 肯定性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주인공 자신이 변신 주체로서 해결 구조의 否定性을 띠는 설화 역시 이 부류에 포함될 것이다.

7. 變身 交構 出生型

‘例話 15’ (자료 80)

- 1) 옛날 부잣집 딸 아이가 그녀의 별침당에 한 도령이 찾아와서 동침을 하고 간다고 아버지에게 말을 한다.
- 2) 그녀의 아버지는 명주실로 도령 허리를 묶어 두라고 한다.
- 3) 다음날 실이 들어간 돌을 들어 보니 지렁이가 나타나자 죽여 버린다.
- 4) 그 후 아이를 해산하니 비범한 인물인 김통정이 된다.

본 유형에 해당하는 자료는 거의 傳說系 變身 說話이며, 그 내용은 「異物交構 모티브」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의 합리적 기능이 부여된 유형이다.

장주근님은 이러한 交構型을 戀情 交魂 說話에 두고 그 하위 유형으로 ‘신혼이 물교혼, 연정 교혼’ 등으로 분류한 바도 있다.⁴⁶⁾ 이와 같은 설화를 학계에서는 異物類 交魂譚 혹은 夜來者型 說話라고 부르며 本考의 자료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는 變異型이지만, 夜來者의 형태는 本土와 차이가 있다.

夜來者의 정체는 주로 ‘뱀’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⁴⁷⁾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 本島의 夜來者 변신 주체이다. 異類 交婚譚은 비상 인물의 탄생이 그 주제가 된다는 것과 같이 본고의 자료는 夜來者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신통한 인물이 출생된다는 점을 공통 유형으로 선정했다.

그러므로 「變身 交構 出生型」은 본 도의 설화에 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本土의 설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하위 모티브 별로 보면 「變身 異交, 變身 異物 把握, 變身 綻露 및 죽음, 異交 出生」등의 4개 하위 모티브로 구성된다. 이 모티브는 이야기 구조 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本類型에 해당하는 變異의 樣相은 다음 ‘表 5’ 과 같다.

46) 張壽根, 「上代 說話에 보이는 人間性」, 國文學報 第1輯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會, 4287), p.89.

47) 張德順, 前掲書(註3), p.138의 도식 참조.

〈表 5〉 異物 出生 모티브의 變異的 様相

구분 각편	시간	이물대상	해결자	파악물	이물은신처	원 형	이물 처리	출생자
자료 64	옛날	과부 - 남자	동네인	실	누뚱돌밑	지렁이	죽임	김통정
자료 65	//	딸 - 도령	부 친	//	큰 돌	//	//	//
자료 66	//	여인 - 동자	어 사 편 람	//	산 속	산삼, 돼지	돼지 죽임	최고운

이러한 「異交 出生型」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挿話 내용도 단락 구조와 할 때 역시 4단계 구조 체계로 형상화된다.

- 1) 한 여자가 잠을 잘 때 한 남자가 찾아와서 같이 자고 간다.
- 2) 누군가 남자 허리에 실을 묶으면 알 수 있다고 한다.
- 3) 다음 날 실을 찾아 이물 정체를 파악하고 그 이물을 죽인다.
- 4) 그 후 아들을 낳으니 신통한 인물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의 영웅적 인물 출생 과정은 선천적인 능력을 부여하여 합리화되나 이와는 달리 후천적 능력을 부여해 주는 本島의 自生說話로는 「진좌수형(자료 27 - 32)」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變身 異交 형태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⁴⁸⁾

본 유형의 해결 구조 체계에서는 출생 형태의 비범성을 부여하기 위한 神話의 原初 意識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내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異物 交構型」의 변신 주체는 단일성으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본 유형의 변신 이물 원형에 해당하는 화소는 ‘지네(자료 48, 51), 구렁이(자료 49, 50), 쥐(자료 52, 54), 개구리(자

48) 金圭泰, 「韓國神話와 原初意識」 (二友出版社, 1980), pp.132-133.: ‘허드슨만 입구의 파피랜드의 에스키모 사이에 전승되는 이야기로써 시집가지 않겠다는 딸에게 아버지가 욕을 하자 이튿날 빙에 개 가죽 바지를 입은 남자가 찾아와서 동침을 했다. 그는 그 집의 개의 변신이었으며 그 후에는 딸이 강아지를 출생하게 되었다. 결국 개의 출생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로 설화의 세계성을 알 수 있음.’

료 53)’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變身 原型에 대한 민중들의 반응은 변신 원형을 죽이는 내용으로 형상화되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출생 과정을 허락하는 후반 내용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전환된다. ‘자료 48 - 54’에서도 「變身 異物 交媾 모티브」로 형상화 되었으나 變身 原型에 대한 반응이나 출생 까지도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숫불 위에 다리 벌려 서게 하거나(자료 48, 53),’ ‘불사른 시루 위에 걸터 앉게 하거나(자료 49),’ ‘배를 누르거나(자료 52),’ 하여 그 後患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變身 異物 交媾와 出生 모티브」에 의한 본 유형에서는 變身 異物에 대한 제거의 손실과 민중이 바라는 上向 意識을 한 인물에 대한 출생형태로 形象化되는 민중의식의 보상이다.

8. 變身 異物 獲得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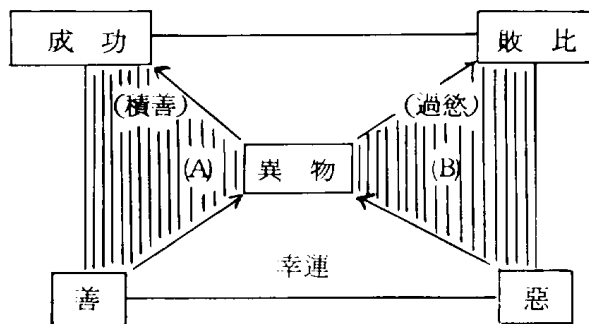
‘例話 16’ (자료 82)

- 1) 봉사와 앓은뱅이가 서로 의지하며 동냥질을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 황금을 발견한다.
- 2) 황금으로 우정이 파괴될까 두려워 장사군에게 주려고 한다.
- 3) 장사군이 그곳에 달려가 보니 구렁이로 보이자 칼로 잘라 버리고 돌아와서 그들을 두들겨 준다.
- 4) 그들이 다시 가 보니 황금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생활한다.

본 유형에 해당하는 異物 話素의 획득이 우연적이든(자료 82, 83, 85), 인위적이든(자료 84, 86), 내용에 대한 주요 모티브는 ‘幸運’이다. 또한 그 變身化 異物을 획득함에 있어서 주제의 방향을 어떻게 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變身 異物 獲得 成功型(자료 82 - 84)」과 「變身 異物 獲得 敗北型(자료 85, 86)」으로 구분이 가능해 진다. 전자는 「幸運 모티브」의 進展(積善)에 따라서 ‘致富, 名譽, 治病’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후자는 「幸運 모티브」과 「過慾 모티브」로 전환되면서 ‘敗北(매를 맞음, 죽음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

리고 이 變身 異物의 형태는 민중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話素로써 ‘황금(자료 82, 83), 호랑이 눈썹(자료 84), 도깨비 방망이(자료 85), 해골(자료 86),’ 등의 추상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선택된다. 또한 주인공은 이러한 變身 異物에 의하여 능력을 부여 받고 있으나 해결 단락에서 나타나는 대극적인 구조 체계는 勸善懲惡의 주제와 부합되어 二重性을 갖는다. 善과 惡의 대립에서 최종적으로 형상화되는 善의 승리는 민중의 종교적인 추구 이념에서 善의 경지를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의 변이적 형태는 고대 서사물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圖 8〉 敍事 構造의 二重性



위의 圖式에서 善과 惡의 세계는 엄밀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變身 異物 獲得의 「幸運 모티브」에 의해 (A)와 (B)의 세계로 명백히 구분이 된다. 이때 (A)의 세계가 「異物 獲得 成功型」으로 볼 수 있다면, (B)의 세계는 「異物 獲得의 敗北型」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은 해결 단락에서 삽화적인 내용이 첨가되어 善과 惡의 대립 양상을 더욱 강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물론 變身化 異物의 獲得 方法에서 나타나는 興味性, 誇張性은 민담계 변신 설화로의 분류를 가능하게 하지만, 변신으로 인한 「幸運 모티브」는 인간의 倫理的 社會的 意識 構造를 기본적인 挿話형태로 형상화 시킨다. 이것은 민중의 요구가 이러한 변신물에 이입되어 人間과 事物과의 동일성으로 나타나서 致富, 官尊 등의 庶民 意識을 자극하고 설화 내용 속에서나마 上向 意識 및 成就 意慾을 만족하려는 동기와 상통되는 것이다.

IV. 濟州島 變身 說話의 構造

1. 變身 모티브와 構造 體系의 關係

한 편의 이야기는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나름대로의 의미를 전달, 수용하기 위해 다른 이야기들과 공통된 어떤 構造를 갖는다.⁴⁹⁾ 이 구조는 口傳에 적합한 것으로 단순하면서도 잘 짜여져 있다.⁵⁰⁾ 또한 그 構造에 참여되는 構成 要素들은 사건 진행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 사건 내용은 한 편의 이야기를 일정한 組織體로 구성된 文學的 形象化와 관계가 깊다.

變身 說話—넓은 의미의 변신이 발생하는—도 일반 설화⁵¹⁾와 마찬가지로 〈導入部〉, 〈展開部〉, 〈發展部〉, 〈解決部〉 등의 4단계 構造 體系化⁵²⁾가 가능하다. 그리고 傳說系 變身 說話의 지명, 사물, 동물 변신 유래형의 「名稱 由來 모티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거물 제시는 〈證示部〉로 설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의 이야기로 형상화되는 구조 단락은 인물, 배경 등의 상황을 알려주는 〈導入部〉, 상황이 하나의 驚異的 사건으로 발생하는 〈展開部〉, 경이적인 사건이 상대와의 對立, 葛藤으로 나타나는 〈發展部〉, 그리고 갈등이나 사건이 마무리되어 해결되는 〈解決部〉등의 구조 체계로 형상화될 때, 〈證示部〉는 傳說系 變身說話에 국한된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證示部〉는 해결 단락 구조 체계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解決部〉에 포함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事實性이나 眞實性을 강조하고 證據提示로 형상화된 證示 기능은 설화 장르의 허구적 내용과 문학적 성격에서 마무리되는 해결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설계 변신 설화 특히 由來型이나 특정 인물의 本格譚에 해당하는 설화 내용도 4단계 구조 체계에 포함되며 인물의 變異나 사물 由來에 대한 變異가 발생하는 점에서 설

49) 金治洙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弘盛社, 1981), p.93.

50) 張德順 外, 前掲書(註2), p.17.

51) ‘一般說話’는 變身說話와 구분하기 위하여 非變身되는 他說話에 대한 통칭으로 本稿에서 편의상 사용한 용어임.

52)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81), p.39.

화의 전승, 수용자들에게 나타나는 단순 형태의 이야기는 인간 사고의 원칙을 구조화한 것으로 볼 때 ⁵³⁾ 〈證示部〉가 생략된 형태로 표현하더라도 그 이야기의 主題的 意味는 상실되지 않는다. 構造 類型이 하나의 완성체로 형성됨은 전체성과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⁵⁴⁾ 아울러 變身 說話系의 轉移化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4단계 단락 구조 체계는 설화 내용을 전체 의미 내용의 구조화를 契機的인 부분의 상호 관계에 의한 종속적(syntagmatic) 구조 체계를 형성하는데 ⁵⁵⁾ 변신 모티브의 기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속적 구조 체계의 조직적 요소는 계기적인 文 혹은 文節- 의미 사이의 相關性이며 連結辭와 이미 상호간의 構造的 論理 關係를 유지시키는 기능으로 변신 설화에서는 變身 모티브가 구조적인 논리 관계를 형성하여 주는 ⁵⁶⁾ 것과 같은 의미이다.

예를 들면 〈導入部〉에서 나타나는 변신 양상은 〈發展部〉에서 그 原型이 밝혀진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變身物 退治型(자료 45 - 55)」과 「變身異物 交媾 出生型(자료 79 - 81)」이 이에 해당한다. 이 두 유형에서 형성되는 사건은 설화 내용의 주체자와 변신 주체자와의 대립 관계에서 비롯된다. 〈導入部〉의 變身 樣想에서 사건 발단의 긴장성과 진전의 흥미성을 부여해 주는 모티브는 ‘異物遁甲(자료 46, 47, 54), 婚姻(자료 48, 52), 異物交媾(자료 50, 51, 53, 79, 80, 81)’ 등이며 ‘자료 55’과 ‘자료 81’을 제외하면 설화 내용의 主體와 변신 주체의 對立 樣相은 ‘人間 對 動物’의 관계가 된다. 이러한 변신 주체에 대한 「退治 모티브」는 發展部에서 공통적으로 대립 양상을 보여 적극적 행동에 의해 變身

53) Robert Scholes, 「Structuralism in literatur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4), p.42.

: A Simple form, for jolles is a kind of structuring principle of human thought as it takes shape in language.

54) Jean Piaget, 「Structuralism」 (Universitaires de France Presses, 1968), p.7.

: The integers do not exist in isolation, from one another, nor were they discovered one by one in some accidental sequence and the finally United into a w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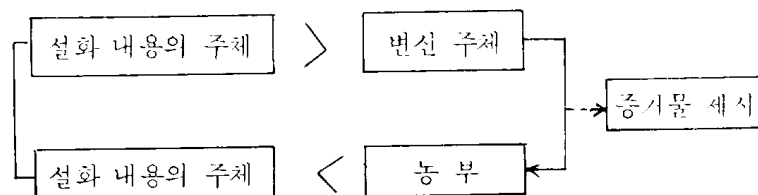
55) J.L.Fischer, 「The Sociopsychological Analysis of Folktales」 (Currant Anthrophology, June, 1963), p.236. 金烈圭, 前掲書(註52), p.23에서 재인용.

56) 金烈圭, 前掲書(註52), p.34.

主體의 原型을 밝히는 구조의 기능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展開部〉에서만 變身 樣相이 나타나는 유형은 「變身 逃避 隱身型(자료 64 - 68, 70 - 72)」으로서 「斷脈 모티브」를 主題로 선택한 本島의 自生 說話에 강하게 나타난다. 〈導入部〉에서 나타나는 설화 내용의 주체인 고종 달은 변신 주체인 水神보다 강한 위치에 있음이 제시되고 〈展開部〉에서 逃避, 隱身에 대한 원조를 ‘농부(本島民의 形象化)’에게 받을 수 있도록 契機的인 意味 構造 體系를 설정하고 있다.

〈圖 9〉 逃避, 隱身 모티브의 意味 構造 體系



‘圖 9’에서 보듯이 변신 주체의 나약한 성격은 ‘농부인 도민과 同一性으로 강한 힘의 보강과 아울러 地理的 風土性에 대한 민중 생활 의식이 합리적으로 형상화된다. 또한 生·死의 因果的 關係에서 끝내 生을 선택한 民衆의 意志的 意味 構造 體系는 自我의 기능 회복 형상화로 逆構造化 된 것이다.

〈展開部〉에서 발생된 변신 기능이 〈解決部〉에서 이어 받는 「變身 誘惑型(자료 16 - 32)」은 〈展開部〉에서 제시된 「誘惑 모티브」가 서로 상관성이 강한 변신주체인 ‘여우’와 변신 대상인 ‘여자 혹은 남자’의 話素 선택에 따라 대립적 구조 기능으로 발전된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결국 〈解決部〉에서 「退治 모티브」가 선택되어 原型이 밝혀지며 「誘惑 失敗 모티브」가 동시에 포함되어 ‘動物 < 人間’ 이어야 하는 민중의 설화 의식을 종속적 구조 체계로 형상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發展部〉에서 변신 모티브가 나타나는 유형은 「變身 鬭爭 내기형(자료 76 - 78)」과 「變身 異物 獲得型(자료 82 - 86)」이다. 〈導入部〉와 〈展開部〉에서

는 내용의 주체 및 상황, 사건에 대한 암시만이 소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發展部>에서의 경이적 사건 발생은 대립,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적극성을 띠게 되며 「鬭爭 모티브(자료 76, 77)」로 강화되어 나타나는 變身 主體와 동일성이 부여된 주인공의 승리는 결국 긍정적 해결 구조 체계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또한 「내기 모티브」에서 消極的 對立의 進展으로 인한 주인공의 승리 획득은 결국 逆構造 機能에 의해 否定性으로 形象化된다.

「變身 異物 獲得型」의 구조 성격은 善과 惡의 대립적 양상이다. 즉, ‘황금(자료 82, 83), 도깨비 방망이(자료 85), 해골(자료 86),’ 등의 善 의미 話素와 ‘구렁이(자료 67, 68), 죽음(자료 70), 봉변당함(자료 71)’ 등의 惡 의미 話素로 형상화된 二重的 對立 構造를 형성하지만, 결국 善의 승리와 함께 勸善懲惡의 해결 구조 체계로 종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황금’의 話素 선택은 「幸運 모티브」에 의해 善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민중의 의지와도 상통되는 구조 체계이다. 이것은 <導入部>에서 <解決部>까지 善意識으로 나타나거나, 善意識에 대한 逆構造 기능으로 인하여 ‘敗北(자료 85의 죽음, 자료 86의 봉변당함)’의 解決 構造 體系를 내포한 복합적 의미 구조로 구체화시킨 民譚系 變身 說話의 성격이 강하다.

<解決部>에서만 변신 양상이 나타나는 類型은 ‘不孝(자료 56-58), 怨恨(자료 59-60), 坐絕(자료 61), 悔恨(자료 62), 悔改(자료 63)’ 등의 모티브에 의해 형상화된 「變身 由來型」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료 63’만을 제외하면 사물화 변신 양상의 구조 체계로 형상화 되고 있다. 이러한 變身 由來型에 나타난 事物化 變身 구조 체계의 특징은 변신 주체의 변신 모티브가 사건 내용과 主題 意味에서 모두 證示 기능의 종속 구조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민중에 대한 설화 의식을 밀접하게 내포하고 있는 점이다.

변신 모티브의 변신 양상이 나타나는 단락 구조 체계와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다.

導入部：變身物 退治型, 變身 交媾 出生型

展開部：變身 誘惑型, 變身 逃避 隱身型

發展部：變身物 退治型, 變身 交媾 出生型, 變身 鬭爭 내기型, 變身 異物 獲得型

解決部： 變身 誘惑型，變身 由來型

상기한 유형과 구조 체계의 상관성에서 「變身 應報型」은 다양한 설화 내용과 변신 기능에 의한 구조 체계가 應報的 성격으로 형상화되어 〈解決部〉에서 변신이 발생될 것 같지만, 변신 모티브 역시 다양하여 일정한 형태의 단락 구조 체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위의 4 단계 구조體系에서 變身 樣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단락은〈發展部〉에 해당한다. 이것은 모든 사건이나 내용이 절정에 해당하는 危機 구조 체계로 본다면, 변신 구조 체계의 사건 진전에 대한 핵심은 發展段階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2. 變身 挿話의 構造的 機能

변신 설화의 構造體系와 意味의 상관성은 서로 긴밀한 構成段階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構造體系에 참여되는 挿話は 모티브의 기능에 의해 설화형(type)⁵⁷⁾을 구성해 주는 대등적인 하위 說話型으로 내용의 主題的 意味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例話 17’ (자료 1)

……천지왕이 해와 달을 먹는 꿈을 꾸어 총명부인과 결연을 맺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 온다. 수명장자의 행실이 나쁨에 대한 벌을⁵⁸⁾ 내리고 그 후에 총명부인과 결연을 맺고 아들 둘을 낳는다. 그들은 각각 대, 소별왕이 되어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두고 대별왕은 저승법을, 소별왕은 이승법을 마련하게 된다.⁵⁹⁾

‘例話 18’ (자료 11)

……허좌수가 굶는 곳을 지나다가 말이 죽자 말을 잡아서 굶게 했는데 굶

57) 崔來沃, 前揭書(註14), pp.13-14.

58) 玄容駿, 前揭書(註19), p.37에서 ‘벌’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 수명장제 쏘 아기 족수까락 허나 찢러그네 못버랭이 몸으로 마련하고 수명장제 아 들덜 牛馬(牛馬) 물을 아니 맥여그냉에, 똥소로기 몸으로 환생(還生)을 시켜근 주둥 이 꼬부라지게 허영 비 오라나민 놀갓물이나 흘타 먹게하라.’

59) 玄容駿, 上揭事典, ‘자료1’에 해당하는 「천지왕 본풀이」내용 참고할 것.

이 한창 진행되니 구렁이가 나타난다. 허좌수가 달려들어 죽이려 하자 청비둘기로 변하여 칠오름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후 허좌수는 본향당신에게 죽고 집안까지 몰락한다. 허좌수도 당에 같이 모셔진다.⁶⁰⁾

‘例話 17’의 내용은 本島 巫俗 儀禮 중 초감제 때 무당에 의해 불러지는 본풀이 신화로서 신화적 개념인 宇宙의 起原 등 태초적인 일들을 신의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설화이다.⁶¹⁾ 그러므로 島民들에게 전승, 향유되는 기회가 傳說系나 民譚系 變身 說話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例話 18’은 ‘禮村 本郷堂 본풀이’에 해당하는 堂神話系 說話이다. 당신화계 변신 설화도 自然, 人文 思想의 인격화와 이들의 同化 그리고 이들의 상호간의 계보, 정서화함으로써 그 구성이 강하여⁶²⁾ 高次的인 說話 形態로 형성되는 것이다. 變身 說話系에서 神格인 형태로 전개되는 내용은 민중 생활과 밀접한 구조 체계로서 설화의 意味的 構造 체계가 성립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例話 17’의 내용은 變身 由來 機能을 부여해 주는 挿話を 비롯하여 각 挿話에 나타나는 모티브의 성격으로 설화의 주제 내용에 따른 유기적 구조 형성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例話 17’의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신분상 나타나는 ‘天↔地’의 대립 양상은 소극성을 보이지만, 夫婦 結緣에 의해 해결된다. 그러나 총맹부인과 수명장자의 ‘貧↔富’에 의한 적극적 대립 양상은 해결되지 않아 懲戒의 결과에 따른 「由來 모티브」의 挿話的 構造 기능으로 내용이 형성된다. 이처럼 變身 挿話 내용이 結合의 法則⁶³⁾에 의해 動物 變身 由來 모티브를 형성함과 동시에 證示的 기능에 의한 복잡한 형태의 高次的 變身 說話로 발전시키는 구조 체계 및 내용의 變異・轉移化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挿話 형태의 구조 체계에 따른 내용은 항상 고정적 체계로 유지되지 않는다.

60) 玄容駿, 上揭事典, ‘자료 11’에 해당하는 「禮村 本郷堂 본풀이」내용 참고할 것.

61) 玄容駿, 「濟州島 神話와 開闢神話」(제주도 52, 1971.12.30), p.44.

62) 玄容駿, 「堂 神話의 內容構成과 背景 民俗信仰」(濟州學報 6, 1964), p.34.

63) 崔來沃, 前揭書(註 14), p.223.

‘例話 17 - 1’

- 1) 옛날에는 귀신과 생인이 구별없이 생활했다.
- 2) 그 때 옥황의 큰 딸이 심술이 많아 밥과 장을 빌러 오는 사람에게 상한 음식을 준다.
- 3) 옥황상제는 행실이 나쁜 큰 딸을 이승으로 귀양 보낸다.
- 4) 큰 딸은 이승에 내려와서 목자와 일꾼에게 밥을 얻어 먹으니 옥황상제는 큰 딸을 꽃버랭이로 변신시켜 콩밭 속에 숨어 살게 한다. 그 후에는 꽃버랭이 궁둥이에 숟가락이 꽂혀 있다.⁶⁴⁾

‘例話 17 - 2’

- 1) 옛날 어떤 게으른 머슴이 소에게 물을 먹인 것처럼 하기 위해 먹이 통에 오줌을 누어 주인을 속인다.
- 2) 하루는 주인이 소에게 물을 먹이자 너무 많이 먹어 죽어 버린다.
- 3) 주인은 모든 사실을 알고 머슴의 입을 뜯어 죽여 버린다.
- 4) 머슴은 죽으면서 술개로 변했으며 그 후로는 비가 오려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날개 깃에 묻은 불로만 목을 축인다고 한다.⁶⁵⁾

위의 ‘例話 17 - 1, 2’는 「動物 變身 由來型」에 포함시킬 수 있는 民譚系 變身 說話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結合의 法則에 의해 복합적 구조에서 부분적 插話가 分離의 法則⁶⁶⁾에 의해 독립적 유형의 변신 설화 구조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例話 17’에서 ‘例話 17 - 1, 2’가 발생하여 하나의 완전체로 존재하는 變異・轉移化 양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圖 1’에서 보듯이 神話系 變身說話 내용의 變異・轉移化는 신성성과 평범한 민중 생활의 복합 형태 구조에서 응집력이 약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 민중의 체험, 사상 등을 신성한 神話的 내용에 結合시

64) 秦聖麒,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1982), pp.44 ~ 45 내용 참조.

65) ‘자료 63’의 ‘소리개’ 내용을 참고할 것.

66) 崔來沃, 前揭書(註 14), p.223.

김으로써 더욱 강한 意味 構造 體系를 형성하려는 설화 민중 의식의 발상에서도 나타난다. 즉 神話系 變身 說話에서 분리된 挿話가 한 편의 독립적 설화 구조 체계를 형성할 때는 민중 생활 의식과 더욱 밀접한 民譚系 變身 說話로 轉移化 과정을 보인다. ‘例話 18’의 神話系 變身 說話 역시 ‘자료 73’으로 變異・轉移化시킨 모태적 성격을 띤 내용이다. 이러한 話素의 變異는 ‘神>人間’의 관계를 人間 中心의 性格으로 변화시키며 部落 名稱 由來 모티브의 證示的 기능까지 첨가하여 내용의 變異는 물론 民譚系 變身 說話의 轉移化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變身 모티브에 따른 挿話의 變異的 형태로 표출되는 대표적 유형은 「變身 交媾 出生型」이다. 이러한 유형은 「김통정형(자료 79, 80)」, 「강감찬형(자료 48, 49, 50, 53)」, 「최고운형(자료 81)」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자료 79 - 81’은 出生 挿話 구조이지만 ‘자료 48 - 50, 53’은 출생과 일생사의 복합적 구조로 되어 있다. 「出生 모티브」로 형성될 때는 모두 변신물과의 「交媾 모티브」가 복합되어 나타난다.

고대 소설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최고운형」의 出生 挿話는 고대 소설의 전체 구조에 대한 발단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挿話 자체가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역사적 인물을 전설화함에 나타나는 민담 주지의 하나인 異物 交媾 형태는 그 이물이 짐승일 경우 그것이 흔히 totemism 또는 animism의 잔재로 간고되겠다. 이같이 民間 信仰 혹은 原始 宗教에서 비롯하는 민간 전승의 한 주지가 그대로 「최고운 전」이라는 說話的 소설에⁶⁷⁾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설화 자체의 轉異는 무한한 說話 意識 世界의 창조적 성격으로 형상화되어 돼지의 아들 최고운의 전기적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1) 최고운의 모가 돼지에게 붙들려 갔다 온 뒤 아들을 낳는다.
- 2) 태어난 최고운이 버려진다.
- 3) 채 장수 노파가 수양한다.
- 4) 대문호가 된다.⁶⁸⁾

67) 金烈圭, 前揭書(註 52), p.94.

68) 崔常壽, 「朝鮮口碑傳說誌」, 金烈圭, 上揭書 p.94에서 재인용.

이러한 4 단계 구조 체계에서 전승 의식을 구조화 시킨 1) 항의 「出生 모티브」의 變異型은 본 도의 변신 설화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本土의 說話나 고대 소설의 「出生 모티브」는 ‘돼지’인 異物과 人間의 직접적인 교구관계로 형성되지만 본도의 변신 설화는 植物 변신 주체자의 「異物 交媾」 및 「出生 모티브」의 형태로 連鎖的 變身 양상인 ‘산삼→초립동이→산삼→돼지’로 再創造되어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出生 모티브」만으로 설화 내용의 주체자에게 신이적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단순한 의미 구조 형태로 전승·수용하기 보다는 「變身 異物 交媾 모티브」를 삽입시켜 설화의 虛構性, 興味性을 부가하는 것이다.

상기한 ‘表 6’과 같이 變身 交媾의 變異 構造 체계는 本島民의 합리적 사고법에 의한 재창조 과정으로써 話素 및 挿話의 變異가 신화계 변신 설화의 내용을 전설계나 민담계 변신 설화로 變異 및 轉移化시킴과 동시에 說話의 文學性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처럼 설화 내용 전개에 필요한 話素와 挿話의 선택은 모티브와 주제 내용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내포되어 있음과 동시에 說話 構造 體系와 意味的 變, 轉移化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V. 變身 모티브의 文學的 意味

說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사실적인 이야기이며, 사실 여부보다도 文學的인 흥미와 교훈 때문에 존재하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民謠, 敍事 巫歌, 판소리, 小說 등 모든 서사 문학의 장르들과 일치한다.⁶⁹⁾ 설화의 사실적인 이야기는 口傳된다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保存과 傳達 상태에 대한 인식의 형태나 어떤 문학인가 하는 가변성도 동시에 내포하는 것이다.⁷⁰⁾ 이것은 곧 하나의 일정한 構造 體系를 형성하게 된다.

文學이란 언제나 재미있어야 하고 구조와 美的 목적과 全體的 統一의 效果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⁷¹⁾ 민중의 생활에 대한 眞理의 表現 바로 主題와 밀접한 연관성이 맺어진다. 그러므로 한 편의 敍事 內容은 諸 要素와의 관계에서 완성된 組織體로 구성되며 이것은 곧 문학적 형상화와 관계가 깊은 것이다.

本島에서 전승되는 變身 說話의 敍事 構造 내용도 민중 생활의 고차적 사고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실 생활의 사고 작용에 의한 變身 說話系의 형상화는 주제 개념에 부합된 類型化의 가능성과 그 내용을 유지시키려는 능력을 구비하여 ⁷²⁾ 하나의 통일된 구조 체계를 형성하는 原初的 기능이 모티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구조체계를 형성하는 데 참여되는 모티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조동일님의 한국 설화에 대한 분류 체계에서 ‘잘되고 못되는 사연’으로 구분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⁷³⁾ 肯定的인 성격과 否定的인 성격이 바로 그것이다. 물

69) 張德順外, 前揭書(註2), p.15. : 가점은 필자가 함.

70) M.마렌 그리제 바하, 장영태 옮김, 「문학연구의 방법론」 (弘盛社, 1982). p.5.

71) 金宅圭, 「韓國民俗文藝論」 (一潮閣, 1980), p.45.

72) S. Thompson, 前揭書(註7), p.415. : ... a tale having a power to persist ...

73) 趙東一, 「한국 설화 분류 체계와 ‘잘 되고 못되는 사연’」, 『口碑文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의 내용 참조.

론, 이것은 설화 내용에 나타난 민중들이 공유하고 있는 善의 세계와 惡의 세계로 나누어지는 世界觀的 발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변신 과정의 표출은 一元性⁷⁴⁾을 전제로 하여 나타난 變身 樣相에서 原始 綜合的인 신앙, 呪術的 思惟의 원질을 추출할 수 있으나, 민중의 설화적 표출 의도는 원시 종합적인 신앙성과 함께 민중 생활의 道德的, 倫理的 배경을 통해 주제 성격을 내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신을 포함한 傳奇的 형상화는 민중에 대한 심각성을 끄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⁷⁵⁾

이 점은 내용 전달의 한 방법임과 동시에 민중의 근본 정신에 대한 목적을 풍부하게 해 주는 기능도 내포되므로 구비문학의 포괄성에서 民俗的 고찰과 함께 文學的 의미 추출도 가능하게 된다.

본 항에서는 문학적인 구상화나 創意的 표현에서⁷⁶⁾ 모티브의 기능이 민중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類型으로 형상화 되지만, 그 모티브의 核心的 성격에 의해서 형상화 과정을 파악하여 설화의 文學性에 접근, 그 문학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일 따름이다.

변신 성격의 類型化 과정 중에 우선 話素의 대립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人間과 自然物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變身 樣相은 ‘人間 \leq 自然物’ 주로 ‘동물’의 관계로 발전을 보이면서 형성된 사건은 ‘人間 $>$ 自然物’ 관계로 전환되면서 해결된다. 또한 ‘神格 \leq 人間’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신은 대개 ‘一元性’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관계는 모두 사건 형성에서 대립, 갈등의 투쟁 양상으로 형상화 된다. 이 투쟁 역시 二重的 意味의 포괄성을 띠는 것이다. 민중 생활에서 부딪치는 外勢의 힘에 대한 탈피 및 도전으로 자기 보존의 내적 투쟁과 외적 투쟁 양상이 그것이다. 이것은 정(正)·사(邪)의 대결 이념 위에 바탕을 두어 민

74) 金長煥, 前掲論文(註12)에서 인간과 동물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일원성의 범주에서 人間, 動·植物이나 기타 자연 대상물과의 교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바 있음.

75) 孫晉泰, 「韓國民族의 說話」, 『韓國民俗研究論文選Ⅱ』(한국민속학회, 1950), p.184.

76) 金宅圭, 前掲書(註71), p.53에서 재인용.

담 전체의 主題와 관계가 깊거니와 민중 생활의 진정한 美와 眞理의 世界觀을 표출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⁷⁷⁾ 그러므로 敘事的 내용에서 나타나는 투쟁 양상은 主題 성격과도 긴밀한 유기적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설화의 轉移 過程에서 나타나는 ‘神→人間’ 사이에 Hierologia는 신성성을 잃고 단순히 ‘人間→人間’ 간의 설화로 변질되어 민중 문학으로의 계승될 문학 형태로 가능할 수도 있다.⁷⁸⁾ 그러나 人間과 自然物 또는 精靈 과의 관계가 문학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결과는 될 수 없다. 人間과 人間 이외의 투쟁 화소는 표출 의도나 방법에 따라 서로 대치되는 경우는 흔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變身 誘惑型」에서 人間과 動物의 투쟁관계는⁷⁹⁾ ‘動物←(拒否)→人間’, ‘動物 = (誘惑) = 人間’의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誘惑 모티브」의 기능에 따라 투쟁 양상은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 또한 그 투쟁 양상은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이 특징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인간은 초인력 능력을 부여받아 그 투쟁을 승리로 해결시키려는 합리적 형상화에 참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變身 應報型」에 나타나는 변신 과정은 주인공 자신에게 주어진 肯定的 삶과 否定的 삶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투쟁 양상을 공통점으로 나타낸다. 이 점은 「變身 由來型」의 외적 투쟁 결과에 의한 변신 양상으로 형상화 되어 구성 단계 중 〈解決部〉에서 나타나는 변신 양상과 같은 구조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변신 주체는 변신 설화 내용의 주체로 자격을 부여받기도 하고, 투쟁에 의한 대립적 존재로서 자격을 부여받기도 한다. 즉, ‘人間↔自然物, 精靈’의 관계에서 그 話素의 樣相은 고정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비문학의 특성 중 하나로써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신 기능과 투쟁 양상에서 나타나는 민중의 의도, 삶에 대한 島民들의 형상화는 바로 주제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77) 張德順, 前掲書(註 3), p.157.

78) 金宅圭, 前掲書(註 71), p.53.

79) S. Thompson, 前掲書(註 7), p.436에서 ‘Aarne’는 民譚의 原型과 變型의 관계에서 나타난 변화의 종류를 15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양상은 ‘9. Animal tales may have human characters replace the animal. 10. Human tales may have animal characters replace men and women... 등이라 하고 있음.

도덕적, 윤리적 배경에 바탕을 둔 勸善懲惡의인 善 추구 의식으로 형상화되어 民衆生活 전반에 나타난다. 또한 내적 투쟁에 의한 교훈적 의미와 외세와의 대립 투쟁에서 표출되는 거부, 반항 및 抵抗意識은 上向 意識에 대한 성취 및 慾望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쟁 양상에서 나타나는 선택의 의지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부여된 사건 구성에 呪術的, 傳奇的 요소에 심각한 변신 과정으로 첨가된다. 이 사건 구성이 劇的인 것이요, 이 劇的 구성이 이미 文學的 構造를 형성하여⁸⁰⁾ 내용에 대한 主題 方向이 설정되고 그 주제 방향은 민중 생활과 의식에 대한 美와 眞理를 대신하기 때문에 變身 說話系의 의미도 민중의 세계를 떠나서 獨自的 成立이 不可能한 것이다.

예를 들어, 本島의 變身 說話 중에 自生的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 형상화된 「고종달형」의 神格은 逃避와 隱身 모티브에서 援助者인 ‘농부’와 同一性을 부여 받고 있다. 즉 ‘神格 > 人間’ 이어야 하는 관계가 ‘神格 ≤ 人間’의 관계로 전환되는 그 순간부터 사건은 劇的 형상화이며 神格 형태의 표출 방법보다도 逃避 隱身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모티브의 文學的 기능이 더욱 重要的 意味를 띠게 되는 것이다. 변신 설화계에 형상화된 神格은 그 흥미와 쾌락, 오락을 동반한 民衆의 同一性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외적 압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강한 생활 의지의 발현에 의한 變身 說話 類型의 主題性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민중의 의식적 발상으로 표출된 변신 설화계의 文學的 意味는 원시 신앙적 표현이나 고대 생활 양상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야기 구조 체계를 모티브의 기능으로 접근,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80) 張德順, 前揭書(註 3), p.155.

Ⅳ. 結 語

필자는 지금까지 제주도민에 전승, 향유되는 변신 설화 각편에 나타나는 變身樣相과 類型化 체계, 그리고 모티브와 挿話의 構造的 기능을 고찰하여 왔는 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도의 변신 설화도 삼분법에 따라 神話系 變身說話, 傳說系 變身說話, 民譚系 變身說話 등으로 구분하여 제 특징 파악이 가능하다. 본 도 신화계 변신 설화의 서사 유형이나 구조 형태와 관계되는 변신 양상은 무속 의례 중 본풀이 내용에서도 그 특징이 파악된다. 그 類型은, 민중 생활이 내포되어 民譚系로 轉移 과정을 보이는 「由來 및 怨恨 變身」과 토tem 및 자연물 숭배 사상 등 원시 신앙의 반영에 의해 卽物性이 강한 「神格化 變身」으로 대별할 수 있음과 동시에 動物化와 事物化의 변신 양상이 강함도 파악된다.

본풀이 종류에 따라서도 一般神 본풀이는 변신 유래 모티브에 의해서 動物化 變身樣相으로 형상화되어 民譚系, 挿話 기능과 공통점이 많아 설화계의 變・轉移化가 발생되지만, 堂・祖上 본풀이는 민간 신앙성이 강하여 〈解決部〉의 「좌정 모티브」에 의해 神格의 존재 가치로 인정 받으므로 民譚化 轉移가 희박해 진다.

傳說系 變身說話는 神話系 變身說話보다 다양한 변신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민중생활을 포함한 자연 현상에 同一性을 부여한 민중 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변신 양상은 ‘人間類(25%), 動物類(44%), 精靈類(27%)’의 비율로 나타나서 신화계와 민담계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여 신화계의 신성, 주술성이 약화 또는 민중 생활의 흥미 위주의 화소 선택에 의한 형상화로 민담계의 전이 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즉, 민중 생활의 변화에 의한 사고 과정의 다양성으로 신화계 성격을 유지할 수 없는 事實的이며 實證的, 興味的 요소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民譚系 變身說話의 변신 양상은 ‘動物類(42%)’의 우위성이 강하다. 이것은 자연물 중에서 動物과의 교류 관계가 더욱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人間≦動物’의 변신 기능으로 나타나는 惡意識은 善意識에 대한 대조적 성

격으로써 흥미 요소의 바탕에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倫理的 敎訓性을 강조하려는 민중 의식의 文學的 발현으로 보아진다. 또한 ‘植物類, 精靈類, 事物化’의 변신 양상이 소극적 삼화 기능으로 표출되는 과장, 허구적인 성격도 자연스러운 민중 생활의 사고 작용과 함께 文學的 意味와 접맥되어 있음이 파악할 수 있다.

2. 變身 說話에 나타나는 변신 모티브의 기능은 전체 구성에 필요한 話素를 선택하여 내용의 變異化나 轉移化에도 參與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신 모티브는 설화 각편에서 단일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형태를 취하며 說話系의 下位 類型을 구성하는 意味的 기능을 내포하기도 한다. 변신 삼화도 모티브의 의미로 형상화된 기본적이며 단일성을 띤 서사 구조 체계이지만, 복합 구조 체계의 說話型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에 적용시킬 때 본도 변신 설화는 「變身 誘惑型」, 「變身 應報型」, 「變身物 退治型」, 「變身 由來型」 「變身 逃避 隱身型」, 「變身 鬭爭 내기型」, 「變身 交媾 出生型」, 「變身物 獲得型」등의 8개 하위 類型化가 가능해 진다. 또한 이러한 형태상 분류는 주제 개념에 의해 모티브의 공동성으로 시도된 분류임과 동시에 민중의 선택 의지에 따른 二重的 의미는 민중 생활에 따른 勸善懲惡의 사상적 발상에서 善 意識 추구의 내용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본도 변신설화의 전승 및 수용 단계도 모티브의 전승적인 힘과 함께 構造化가 필요하다. 이것은 곧 文學的 형태임과 동시에 構造의 유기적 관계인 〈導入部〉 〈展開部〉, 〈發展部〉, 〈解決部〉등의 4단계 과정으로 형상화되어 타 敍事文學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서사 구조의 형성 요인을 모티브로 적용시킬 때 각 구조 체계에는 일정한 변신 유형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導入部：變身物 退治型, 變身 交媾 出生型, 變身 應報型

展開部：變身 誘惑型, 變身 逃避 隱身型, 變身 應報型

發展部：變身物 退治型, 變身 交媾 出生型, 變身 鬭爭 내기型, 變身物 獲得型
變身 應報型.

解決部：變身 由來型, 變身 誘惑型

이러한 변신 양상과 유형 관계 중 〈發展部〉에서 강한 변신 양상이 나타나고 있

음은 사건의 절정, 갈등의 위기 단계와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4. 挿話의 構造的 기능은 항상 고정 체계로 유지되지 않아서 주제 내용을 강조함은 물론 構造의 變異化, 轉移化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부분적 삽화의 분리는 독립적인 유형 구조 체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것은 민중 생활의 체험이나 사상 등이 응집력 강화 및 약화에 대한 결과로써 내용의 의미 구조에 대한 變異・轉移化를 초래하기도 한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내포된 대표적 유형은 「變身 交媾 出生型」이다. 즉 토tem 사상을 바탕으로 허구적, 과장적, 흥미적 요소의 첨가로 나타나는 민중의 설화 의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5. 變身 說話의 文學性도 일정한 구조 체계속에 민중 생활의 복합적 의미가 형상화된 主題 내용과 상통된다. 이때, 變身 모티브는 민중의 世界觀에서 발상된 二重的 의미를 善 또는 惡 意識으로 형상화 시킨다. 물론 이러한 성격은 구조 체계에 심각성을 내포시켜 내용 전달이나 민중의 근본 정신에 풍요성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심각성은 正・邪의 대결에 의해 구체화된 갈등 양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거부, 저항의식, 비판적 사고 판단 등의 형상화된 민중의 삶에 대한 의지는 善 意識 추구의 주제 내용으로 형상화 되는 것이다. 주술적, 전기적 흥미 요소인 변신 과정이 첨가되어 劇的 構造 體系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主題 方向을 결정지어 주는 모티브의 의미적 기능과 부합되어 민중의 삶에 대한 美와 眞理의 문학적 형상화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고찰된 본도 變身 說話의 내용은 모티브에 의한 유형화 및 구조체계의 분석과 문학성에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변신 설화에 대한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변신 양상에 대한 모티브의 개념 규정 및 적용도 구체화 되어야 하며 아울러 변신 자료의 대량 수집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본고에서 시도된 방법의 보완과 본도 변신설화계의 世界性을 고려하여 本土와의 비교는 물론 자료 수집 분류의 체계화 및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變身說話 收錄 資料集

1. 濟州島 坐俗資料 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2. 濟州島 傳說(玄容駿). 瑞文堂, 1977.
3. 南國의 傳說(秦聖麒). 學文社, 1978.
4. 南國의 民譚(秦聖麒). 螢雪出版社, 1982.
5. 海村生活調查報告書 一龍水里 吳 吾照里一. 濟州大學報 第19輯 別冊. 濟州大學校 學徒護國團, 1978.
6. 學術調查報告書 5 (난산리).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6.
7. 學術調查報告書 7 (安德面 德修里, 涯月邑 納邑里).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2.
8. 學術調查報告書 8 (涯月邑 郭支里, 光令里).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3.
9. 國文學報 第7輯(中文里). 濟州大學校 國語 國文學會, 1975.
10. 口碑文學大系 9-1 (濟州道 北濟州郡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1. 口碑文學大系 9-2 (濟州道 濟州市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12. 口碑文學大系 9-3 (濟州道 西歸浦市, 南濟州郡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변신설화자료목록

번호	설화명	출처
1	천지왕 본풀이	1 : 35 - 43
2	삼공 본풀이	1 : 192 - 204
3	체스 본풀이	1 : 255 - 275
4	세경 본풀이	1 : 315 - 364
5	분전 본풀이	1 : 398 - 415
6	칠성 본풀이	1 : 419 - 430
7	눈미 불돛당 본풀이	1 : 618 - 620
8	월정 본향당 본풀이	1 : 649 - 655
9	시흥 본향당 본풀이	1 : 681 - 686
10	오드렛당 본풀이	1 : 712 - 713
11	예촌 본향당 본풀이	1 : 730 - 733
12	상창 하르방당 본풀이	1 : 762 - 765
13	나주 기민창 조상 본풀이	1 : 786 - 797
14	고대장본 조상 본풀이	1 : 811 - 823
15	선씨 일월본 조상 본풀이	1 : 834 - 838
16	먹돌이와 여우	3 : 171 - 175
17	외삼촌과 평양 감사	11 : 34 - 51
18	납읍 진스팽이와 여우	11 : 61 - 67
19	여우 잡은 안영장	필자조사(상가리 설화)
20	여우물	
21	이순풍과 여우	3 : 179 - 182
22	무남발 훈장	9 : 139 - 141
23	여우 잡은 이좌수	12 : 44 - 52

번호	설화명	출처
24	여우 잡은 이좌수	12 : 744 — 746
25	자운당 여우와 김씨 조상	필자조사(상가리 설화)
26	사람 잡아 먹는 호랑이	12 : 674 — 684
27	월계 진좌수	2 : 147 — 160
28	월계 진좌수	3 : 246 — 247
29	월계 진좌수	10 : 45 — 53
30	월계 진좌수	11 : 614 — 616
31	월계 진좌수	12 : 71 — 77
32	명의 진좌수	필자조사(명도암 설화)
33	점으로 성공한 청년	3 : 182 — 184
34	탄광회양	3 : 189 — 192
35	공갈은 여우	12 : 679 — 684
36	악독한 의붓 어머니	8 : 210 — 213
37	시아버지 병 고친 며느리	필자조사(상가리 설화)
38	저승할망	3 : 118 — 124
39	악한 며느리	7 : 96 — 98
40	뱀으로 변신한 여자 이야기	8 : 205
41	나무 귀신	필자조사(상가리 설화)
42	여인이 된 지네	필자조사(상가리 설화)
43	뱀을 구해준 포수	필자조사(상가리 설화)
44	왕도령 이야기	필자조사(명도암 설화)
45	왕 고냉이	3 : 106 — 113
46	중으로 둔갑한 여우	10 : 54 — 56
47	소금장수와 여우 잡은 방망이	11 : 198 — 202
48	지네와 결혼한 이야기	12 : 724 — 726

번호	설화명	출처
49	변좌수	8 : 213 - 215
50	강감찬 이야기	필자조사(상가리 설화)
51	황지네와 거지	3 : 192 - 194
52	천년 묵은 쥐와 삼년 묵은 흰 수탉	3 : 187 - 189
53	강감찰	10 : 56 - 66
54	사람이 된 쥐	12 : 726 - 728
55	구두쇠 옹좌수	12 : 713 - 718
56	오백장군	2 : 52 - 53
57	오백장군	3 : 158 - 159
58	영주산과 무선돌	6 : 47 - 48
59	산방덕	3 : 156
60	식산봉의 생성 유래	5 : 126 - 127
61	용머리 바위	3 : 151 - 152
62	각시 바위	4 : 124 - 125
63	소리개	5 : 41 - 42
64	호종단	12 : 179 - 192
65	고종다리	11 : 652 - 657
66	고종다리	2 : 42 - 46
67	호종단	12 : 1055 - 1100
68	고종다리	11 : 722 - 723
69	가릿뱅디	2 : 49 - 51
70	고종달	12 : 406 - 407
71	호종란과 행기물	필자조사(상가리 설화)
72	고종달이	10 : 85 - 88
73	광정당 이야기	7 : 110 - 111

번호	설화명	출처
74	꼬리가 다섯 자, 불알이 다섯 자인 새	3 : 163 - 166
75	고성목과 산방덕	2 : 138 - 141
76	토정선생	10 : 185 - 188
77	고기가 사람된 이야기	12 : 695 - 699
78	어처불상	필자조사(상가리 설화)
79	김통정 장군	2 : 107 - 114
80	김통정 장군	12 : 721 - 724
81	최고운 이야기	필자조사(명도암 설화)
82	황금과 구렁이	11 : 664 - 666
83	봉사와 앓은뱅이	3 : 175 - 177
84	신기한 호랑이 눈썹	12 : 664 - 667
85	은덩두령과 은방맹이	3 : 113 - 118
86	백년 해골 써서 과거한 노인	11 : 262 - 266

參 考 論 著

- 高光敏. 「濟州島 處女堂 본풀이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1982.
- 金光淳. 「孝烈 說話의 樣相과 現代的 意味」. 『女性問題 研究 第13輯』.
曉星女子大學校 韓國女性問題研究所, 1984.
-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81.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 一潮閣, 1965.
- . 「濟州島民謠의 內容上 特色」. 『濟大學報 5』. 濟州大學 再建學生會, 1963.
- . 「濟州島民謠研究」. 도서출판 조약돌, 1983.
- 金長煥. 「變身說話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1982.
- 金治洙. 「구조주의와 문학 비평」. 弘盛社, 1981.
- 金宅圭. 「韓國民俗文藝論」. 一潮閣, 1980.
- 金鉉龍. 「螺中美婦 說話 形成考」. 『국어국문학 55 - 57 合』.
- 成善說. 「韓日民譚의 比較 研究」. 一潮閣, 1979.
- 孫晉泰. 「韓國民族의 說話」. 『韓國 民族 研究 論文選』. 民俗學報 第1輯.
韓國民俗學會, 1950.
- . 「韓國民族 說話의 研究」. 『韓國文化叢書 第1輯』. 乙酉文化社, 1982.
- 李符永. 「分析心理學: C. G. jung 의 人間心理論」. 一潮閣, 1982.
- 李相日. 「變身 說話의 類型 分析과 原初 思惟」. 『국문학 연구 총서 8』,
정음사, 1981.
- 林甲娘. 「뱀 說話研究」. 啓明大學校 大學院, 1983.
- 張德順 外. 「口碑文學 概說」. 一潮閣, 1976.
- 張德順. 「韓國 說話文學 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4.
- 張壽根. 「上代 說話에 보이는 人間性」. 『國文學報 第1輯』. 濟州大學校 國語國文
學會, 4287.
- 全圭泰. 「韓國 神話와 原初 意識」. 二友出版社, 1980.

- 趙東一. 「敍事民謠研究」. 啓明大學校 出版部, 1979.
- . 「한국 설화 분류 체계와 ‘잘되고 못 되는 사연’」. 『口碑文學 6』. 韓國 精神文化研究院, 1981.
- 曹喜雄. 「說話의 類型 및 分類」. 『韓國 口碑文學 選集』. 韓國 口碑文學會編. 一潮閣, 1982.
- 秦聖麒.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1982.
- 崔來沃. 「枯大 生花 說話의 性格」. 『冠嶽語文 研究 第2輯』. 서울 大學校 國語 國文學科, 1977.
- . 「山 移動 說話의 研究」. 『冠嶽語文研究 第3輯』, 서울大學校 國語 國文學科, 1978.
- . 「韓國 口碑 傳說의 研究」. 一潮閣, 1984.
- 玄吉彥. 「제주도 오누이 장사 전설」. 『耽羅文化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 研究所, 1982.
- . 「고종달형 說話에 나타난 濟州島民의 意識構造」. 『韓國文化人類學 9輯』, 1977.
- . 「風水(斷脈) 說話에 대한 一考察」. 『文化人類學 第10輯』, 1978.
- . 「제주도의 장수 설화」. 弘盛社, 1981.
- 玄容駿. 「說話文學과 濟州島」. 濟州道, 1962.
- . 「본풀이와 敍事詩」. 『濟大學報 第4輯』, 1962.
- . 「堂 神話의 內容構成과 背景 民俗信仰」. 『濟大學報 6』, 1964.
- . 「巫俗神話 본풀이 形成」. 國語 國文學會, 1963.
- . 「濟州島 神話의 開闢神話」. 濟州島 1971.
- . 「濟州島 傳說」. 瑞文堂, 1977.
- . 「濟州島 巫俗 資料 事典」. 新丘文化社, 1980.
- . 「處容說話考」. 『국어국문학 연구총서 8』. 정음사, 1981.
- 칼, 융저. 이운봉 역. 「宗教心理學」. 경문사, 1980.
- Ina - Maria Greverus. 金允漢 譯. 「主題(theme), 類型(typus), 話素(Motiv)

: 說話研究의 개념 규정을 위하여』.『口碑文學 4』.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M.그리제 바하. 장영태역. 「문학 연구의 방법론」. 弘盛社, 1982.

大東野乘 I.

J.L.Fischer. 「The Sociopsychological Analysis of Folktales」. Current Anthropology, June, 1963.

Jean Piaget. 「Structuralism」. Universitaires de France Presses, 1968.

Robert Scholes. 「Structuralism in Literature」.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4.

Stith Thompson. 「The Folktale」. New Y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Abstract

A Research on Metamorphosed Tales around Cheju Island

by Koh, Sòk-hee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òn, Yong-jun

The metamorphosed tales can be indicated as the conceptions of all the various types of ancient tales, which transformed into other shapes unfolded by words of mouth around this island (Cheju-do). In this research, I had made several attempts to draw the general patterns with literary meanings and motivations on the tales and to analyse them to gain certain approaches within new ideas from them. In this case, the motives of metamorphosed tales show us some meaningful literary themes or the original contents for keeping ones or succession to the coming generations; they shall be, therefore, the primary elements underlie in the islanders' tale stories. Here, totally, are 86 pieces of selected metamorphosis-tales and all of them are being possessed by or succeeded to the Chejo-do islanders.

Summarized contents on this research are below:

I. The types on myth of the metamorphoses appear frequently in variety figures: transformed aspects into of malice, godhood as animals, rocks or Buddhist-statues so forth. Even the "Bon-puri" for gods or goddess—a kind of exorcism is most characterized deeply by the folk-tale color, on the other hands in the types of "Dang-bonpuri or Josang (ancestors) bonpuri", myth on the metamorphoses contain the literary characters of incantation or of value holiness in the section of apotheoses tales from the seated motives in themselves. The aspects of metamorphoses tales on the fields of legend of folk-tale appear in variety ways of words: Hence the tales could be transformed the public minds of villagers and their natural circumstances into a figure of other types of metamorphoses. In other words, metamorphoses reflect some sorts of literary characters to form on proofs, to make amusements for villagers; and then they are combined strongly with the literary structures to seek the humanity, ethics and edifying stories from the function of metamorphoses about them.

II. Metamorphosed tales around this island can be divided into 8 types of all by the meaningful functional motivations such as below:

- 1) metamorphosis type changed from temptation
- 2) metamorphosis type as retributive story
- 3) metamorphosis type for slaying monsters
- 4) metamorphosis type based on the changeable originality
- 5) metamorphosis type of self-concealing or evasion
- 6) metamorphosis type on struggling or wager against monsters
- 7) metamorphosis type of birth from immoral conduct with a monster or so
- 8) metamorphosis type for gaining something to transform

III. More often than not the structures of these metamorphosed stories around this island have developed such the descriptive forms of common literature as the four courses – ‘the introductory’, ‘the development’, ‘the extension’ and ‘the conclusion’. And the case of these structural descriptive motives are being substituted from metamorphoses. we can see that each structure has a type of new one firmly. Moreover the structural of episodical insertion in its function does always not take a resident situation.

On the contrary, it does emphasize the theme of the tale: furthermore it causes a new transformation with the character of taking apart or putting together in meanings. This indicates a phenomenon on the metamorphoses as the new reflection to the islanders’ public thoughts and their experiences about their daily lives. This reflection for the descriptive literature rises and falls with the villagers’ cohesive power on their world.

IV. Literary characters on metamorphoses tales are the theme or the meanings of their typical structures. At the same time, the villagers’ complex ideas from daily lives are connected with them. Although a great troubles have excessively arisen between the right and the wrong from the metamorphosis-motivations, the public has shown the right directions to their lovely metamorphosis tale and they would choose the eternal choice for good-will at any time. In this way, to choose the theme in metamorphosis contains the precious literary character in every structure.

여우잡은 안영장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683, '85. 1. 15

현이경(남·62). 고석희 조사

여기 하가리에 ‘안영장’이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안 영장이 맹포수예요. 총질을 잘 허는디……. 제주 목사가…… 어느 양반인지 모르지마는, 목사가 부임해 와 가지고 녹혈을 먹겠다고,

“포수를 거느려 올리라.” 허니깐, 안영장을 거느려 올렸거든, 안영장은 목사가 불러다,

“너, 내가 녹혈을 먹을 터이니 사슴 잡아 들여라.” 거니, 목사의 명령이라 어명이지 뭐, 못 잡아 오며는 죽는 거라. 우리래 저 이리로 올라 가며는 ‘몰드르(지명)’라는 데로 들어서 ‘맹단이(지명)’를 들어 갔는디. 맹단이를 들어 간 활집엘 간 가만히 앉았는데. 앉아도 작록이 오들(오지를) 안허여. 저기 ‘석사니목(지명)’이라고 거길 들어간 활집이 간 앉아도 읊서. ‘열희홀(지명)’이라는 디 간(가서) 이젠…, 그게 이제 말허자면 열희홀인디. 활지지라는 곳은 사냥허는 사름이 지역을 만들어 놔둔 곳이지요.

그렇게 아잣더니(앉았더니), 애이(아기) 업은 부인이 산중에서 거기 돌아간 이젠,

“요놈의 자식 여기완 아잣꾸나. 너 집에는 지금 큰일이 났다 이말여. 목사에서 너 이제 곧 잡아 들여 오지 안했다고 스령들이 와서 잡이들이랜 해 가지고 목사에서 왔으니……, 이 디 오랑 이리 한걸히(한가하게) 아질 때가 아니라 바로 가지 안허면 죽게 되었다.”고, 간 착 뉘 둥그러전 야단을 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밤이 부인이 찾앙 ‘열희홀’까지 찾아 올 리가 없다, 이 말이어.

“에이, 모르꼈다.”

잘 자녀(겨냥)을 허고서 와랑허게 쏘음앤(쏜다고) 다락 쏘완 보니, 여희 놈이… 여희가 와 가지고 그렇게…….

(조사자:여우가 예?)

예, 여우가, 그 변색을 해서... 보니까 꼴리(꼬리)가 싯인가(셋인가) 했단 말인디. 그건 꼴리가 싯 꼬지 흰 늙은 여호가 그렇게 했더라고. 해서 그걸 잡아서 좀 있더니, 그제야 아닌게 아니라 사슴 대각이 아팍(앞에) 딱 지나나사 하나 잡고, 또 사슴 두 모리를 거기서 잡아 가지고..... 집안 이젠 한 모리 걸머쥐고 오단 또 오는 길로 오다가 ‘명단이(지명)’를 완 보니까, 어디 땅 밑에서 수굴락 수굴락 하는 허는 소리가 나더니 보니깐, 자기 할망 죽인 놈이라고 하면서..... 맛 쏘아 두고 돌아와서 목소에 가니....

게서(그래서) 각록 두모리를 바쳐 가지고, 그제 그 목소에서 내린 영장 벼슬....., 말허자면 목사가 준 벼슬인디. 여장 벼슬해서 하가리 안가에서 영장이 났는디. 그제 안영장....

제주도에는 그 수백년 내려오던 열희홀..... 여호를 그때 씨가 멸족이 뒀다고. 그 이후 없어 졌다는....

자운당 여우와 김씨조상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683, '85. 1. 15.

현이경(남·62), 고석희 조사.

여호가 이서 났는디. 그전 누가 잡았는고 허니 남읍 김해 짐칩의(김가) 조상이 잡았다고 해.

(조사자:예) 김해 김칩의 조상이 옛날 성안 가가지고 오는디. 항상 물을 타 가지고 오니깐 물을 탄 오는디, 날이 어둑었는디 신엄물 지난 자운당을 들어 오자마자 아이쁜 색시가,

“아이고 나리께서.....내가 같이 갈랍니다.” 허니깐

“어디 이저.....”

“아이고 내가 물 앞의 고치(같이) 타서 갈랍니다.” 이러니깐.

이 양반은 아는 양반이라.

“옳지, 이거 여우다.” 허는 저를 말아 가지고,

“이래(이리로) 타라,” 해 가지고, 예사 툇 타난 어디 뭐 가졌던 걸로 옴쩍 못허게 딱 묶었어요. 옴을 못하게 딱 묶어 가지고 돌아와(달려와) 가니깐,

“아이고 이거 내려와 줍서. 못 가것습니다.”고

들구(자꾸) 들러꿔여(날뛰어) 가되, 잘 식꺼(실어) 가지고……. 집에는 조흔 개가 있는데. 남읍을 들어와 가지고 정문 앞에 들어가멍(들어 가면서) 앞의 탁 세우니, 개는 여호로 보이니 왕 허난 탁 풀어노난…… 개들이 여호를 잡아 가지고, 그때 남읍 김칩 조상이 여호 하나 잡았다는 거 그게 처녀로 변헌 말이고….

(조사자:예.)

명의 진좌수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307번지 1984. 8. 13.

김승보(남:72), 고석희, 김효현 조사

그이가 아 저, 십칠세 때

[조사자:예.]

십칠세 때에 그 저 뭇인가 그때에는 그 서당이랴주. 학교가 엇고(없고) 우리 한국은 서당이랴주., 만허민(많으면) 이십명 그렇지 않으면 십오명, 요렇게 해여 가지구서 저, 글 마르췌주게(가르췌었지).

[조사자:예.]

깡한(그래서) 그디 훈수, 훈석을 했주. 십칠세 때에 그 공부 다녔는디. 다니는 그 도중에서 그 새 각씨를 만난. 만난 홍상(항상).

[조사자 : 새 각씨를 예 ?]

제난, 자기는 모른 거주. 도저히 모르거든, 모르게 된게고. 그러니까 그게 뭐허 주. 우리 제주만은 여시(여우)가 없는데. 그 시절엔 그 여시 행동이란 말여. 그게 여시, 여시 행동인디.

여기서 전설은 어떻게 나오느냐 허며는, 저 쌀가지, 쌀가지 라고 허는 놈이 잇주. 쌀가지라면 여기 말로 식(샷)이주.

[조사자 : 예.]

고놈들이 늙어지면은 변화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현다고 했는디. 그게 늙어서 그렇게 변화가 이실 것이냐, 어실(없을) 것이냐가 우리 의심이쥬. 이 저 여시는 변화를 허는 놈이니까. 전 뭐 변화허는게, 일본엔 지금도 다노끼라고 그거, 지금도 있지 마는, 지금도 그게 만해(많아) 일본엔.

여기는 그 여시가 없으니까 그럴 이치가 없을 것인디 그때 그렇게 했어. 요놈이 변장해 가지구서, 지 집아으(여자)가 되가지고서, 홍상 그 도중에서 장난을 허기 때문에. 그만, 그러니까 누구보고 막도 (막지도) 안허곡 말헐 이치가 없쥬.

처음이니까 좋아서, 제니 이젠 선생이 그 제자를 의심허는 판이라(형편이라). 왜 의심허느냐며는 파리해져 아으가, 아으가 아주 파리해더란 말여. 그러니까 의심해서 잇다가(잇다가), 흐루는 그 놈을 불러 가지구서는 그 저 경계를 했주.

“너 무슨 이유가 잇다고. 네 몸뚱이가 왜 그렇게 파리해 지느냐?”고,

“내가 아니까 그 말을 줌 해라.”고,

이렇게 현 결과가 그 스실(사실)을 말허게 된거주.

[조사자 : 예.]

게 그렇게 아니고, 이 가는 도중 아무 동산이라고 이서. 그디 그 광지 그게 먼 (무슨) 동산이라……. 거기를 간 직은 그 처녀를 만나 가지고 홍상 그저 놀다가 오노 라고 이러니. 이것이 토설이 되엇주.

[스님 : 놀기만 허영 얼굴이 파리해져 ?]

놀아 가지고 홍상 그. 제니 간 정기를 빼어 먹어 버리는 거주. 그 저 식이 화한(변한)……. 그 장난끼리 허니깐 게 홍상 정기를 빼어 먹어. 켜 파리해져 부는 거주. 그리 해서 그게 에…그 선생이 그 시켜줬다 허는 거주. 그게 보통이 아니니깐 이리 저리 해

가지고서...

“어 저 같이 헐 때다가 무슨 이상현, 점이 있지 안허냐?” 허니깐,

“그런게 아니라, 이리 저리해서 아주 아름다운 구슬(구슬)을 자기도 물고, 자기도 물리고 이리 허면서 서로 이렇게 막 허노라.”고, 했꺼든. 허다가 이제,

‘오고 가고 이리 허노라.’

그래서 선생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며는 네가 그것을 네 입에 문 때랑(때는), 물린 때랑 우알을(위아래를) 솔피고(살피고) 생켜불라(삼켜버리라).” 말이지, 제니깐 우알(위아래) 솔핀(살핀) 저리(여유)가 없이 자기 입에 들어간 때에다가 얼핏(얼른) 생켜서(삼켜서), 우알(위아래) 솔핀(살핀) 순간 없이 얼른 보니, 이진 사름이 앞의 척 보이거든.

그것 뿐이라. 제니깐(그러니까) 그것 뿐이라. 경허니, 그냥 그것 톡 삼키니까(삼키니까) 이것이 막 허위어(할퀴어) 분단 말여.

그러니깐 선생님 시킨 말이라고 현 건 순간적으로 잊혀 부런. 또 순간이 었고(없고), 그러니까 사름 흥나만 사름 잇는 거, 그 저 얼른 사름만 뵈 거 뿐이거든. 그러니 인소통화(사람의 일에 능통한 것), 인소만 통해서 천문지 인소(人事) 꼬지 통래 부러시민, 보아시민 통헌다고. 이런 정도지. 현다어시(하여튼), 그러니까 그 영감이 아주 인소로는 뭐 이상이 었주게.

음, 그러니 인소니까. 그 저 영(혼령)으로, 죽은 후에 영(혼령)으로도 살려서, 사름을 살려서 죽은 후에 영으로도 나타나 가지고 사름을 살렸다 허는 양반이라.

[조사자 : 구슬을 먹어분(먹어버린) 후에 예?]

응, 구슬을 생키니까(삼키니까) 그게 환헌 제주.

[조사자 : 그 여우, 그 삶 안테는 무슨 피해는 어서나신가 마씨? 그런 얘기는 안들어 보십디까?]

여우, 미신 거 헌티?

[조사자 : 그러니까 그 구슬을 삼켜 버리니까...]

삼키니까 그 식이, 사름으로 변했던 것이 불변이 되어 부러서. 그냥 근본이 되어 부런.

[조사자 : 근본으로 예?]

그냥 막 식으로 나타나 부러서. 괜이로 나타나 부러지.

[조사자:예, 거기선 그냥 그대로 끝내고 예?]

응, 경해 가지고서 이 온 몸뚱아릴 전부 뜯겼어. 게서 뜯겨 가지고서는 집에 돌아왔
주게. 서당에 돌아 오랏단 말여. 기니 선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허니깐,

“인(人) 뱃긴 못했습니다.”

“헐 수 었다. 뭐 인소는 통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때문에 그 유명허주게. 지금까
지(까지)

[조사자:예, 경헌(그래서) 의사가 되었꼬나 예?]

의사, 의사로 아주 유명했주.

시아버지 병고친 며느리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683, '85. 1. 15

현이경(62·남). 고석희 조사

시아버지가 병이 났느디. 효부가,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을 구해드릴라고 허니깐 약
이, 백약이 무효라. 약이 읍어요. 어디가서 문병을 가니,

“약이 있긴 있는데 당신이…… 해드릴 수가 없다.”고.

“어째서…….”

“무조건 꼭 나말을 듣겠다고 허면 싯다(있다).”

“시아버지·시부모를 살리는 살리는 일이니 내가 꼭 그거 틀림없이 해드릴랍니
다.”

“그러면 당신이 나하고 틀림없는 약조를 합시다.”

약조를 해서,

“그렇게 허자.”

“그러면, 아무날 지금 말로는 열두시 낮에 아들이 서당에 갔다가 책포 들렁(들고)
오는 아덜은 큰 가마에 물 퍼우다가(끓이다가) 아덜을 무조건 심어서 들이쳐 가지고

딸령(딸려서) 먹이면 시아버지가 병이 낫는다.” 이말이여.

[조사자:예.]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시아버진 살려야 하고 아들은 죽여야 되니까. 이거 안 허민 시아버지 살릴 약은 없다 이거라. 그냥 가마솥에 물을 팔팔 끓였는디, 아들이 정문으로 들어오면서로,

“어머니 지금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서당에 갔다 왔습니다.” 허는 인사를 허자, 탁 심어단 끓는 물디레 탁 들이켠 두껍을 탁 덮언, 그걸 딸려서……. 아이가 죽엉 딸려질만 햄시니 진짜 아들이 책포 들렁(들고) 들어 왔더라 말여.

[조사자:예.]

워낙 효성이 지극허니까 산신이 동습을 보내 가지고서 사름으로 변해서 들어 오니 깐……. 이젠 그 열녀가 효부가 되어서, 우리가 들은 말로는 동삼이 그렇게 조화가 많다고 해요.

나무 귀신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683, '85. 1. 15

현이경(62·남). 고석희 조사

거막 강가(강씨)의 집에서 본래 큰 나무가 있었는데. 강가의 집이 부잣집이 그 나무가 집안에 있으니까,

“낭(나무)을 끊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낭을 끄치는(끊는) 데는 어떤고 허니 옛 어른들은 다 일조를 봐서 하는데, 그대로는 안 되어서 도치를 가져다가 상밭에 가져다 물려 놓고 그 낭을 물렸다 그러는디.

[조사자:예.]

이렇게 도치를 몬여(먼저) 상밭에 탁 지들려(눌러) 놔 가지고 우로 끄쳐서(끊어서) 낭을 끄치는디. 이웃집에 목신, 그 귀신이 나와 가지고 사람으로 변해 가서 그 집 주인이 있느냐고 허니까,

“왜현 일입니까?” 허니깐

“내가 발이 다쳐서 약을 줘 주라.”

고 해서,

해낮이 목신이 나왔다고…… 거니, 발을 다쳤다는 건 도처로 가서 낭발을 찍어 노니까 그 발이 맞아서…….

[조사자 : 남자로 변했구나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해서 그 낭을 끊었더니 그집이 결국은 그 이후에 그 집 주인이 죽음인가 하고, 그 집이 망하여 부러졌다고 허는 그 말이 있고……, 폐가가 된 거주.

여인이 된 지네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683, '85. 1. 15

현이경(62·남). 고석희 조사

어디 한 고을에다가 모조간이 사는데. 장가도 못 가고 저 불쌍하게 사는데. 집으로 돌아 오는 도중에 이쁜 처녀가 돌아 오다가,

“나를 살려 주십서.” 말여.

“에이구 뭐 살리기는 어떻게…… 헐 수가 있느냐?”

“아니 나를 살려 주시라,”고 해서

바짝 따라 오니까, 뒷티레(뒤쪽으로) 해서 툇허게 감추완 놔쥔……. 뭇 말을 허는고 허니까,

“뒤에는 나를 잡을 사람이 곧 나를 잡으래 옵니다.” 이렇게 허니까

그렇게 해서 감추와 주니 이 처녀가 이젠,

“아 이런 은덕을 입어서 차후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처남 베영(베어서) 올 적마다 만나꼭 허여서, 어떻게 되느냐 허며는 낮에는 오라 일을 허고…… 일을 봐주고 밤에는 나가. 이제 그렇게 허다 보니 짝 정식 혼례도 추렸고 이렇게 해서 살아 오니 모든 게 귀헌게 없어…….

그 구제해준 인정으로 사는 것이 애 들을 나서. 밤인 나가고 낮인 와 가지고 애이

젓 먹여 주고 집 가세가 넉넉하고 허니깐……. 하루는 뜻밖에 집에 들어 올 시간이 아니단 말여. 남조가……. 부인이 없는데 천만 뜻밖에 바러 보니까 집 상 마루애 지냉이가 붙어 있다 말여. 이 때까지 지냉이가 둔갑을 해 가지고……. [조사자:예.] 했는디……. 남편의 눈을 피해 가지고서 자기 본색을 나타날려니 할 뻔디 그만 걸렸단 말여, 후일에는 또 들녘에 나가서 돌아 오란 보니까 지냉이가 나와 가지구선 애들 다 물언…….

“당신이 내 말을 안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후세에 전하지 못 허구서…….” 이것이 아마 몇년은 꼭 참아 달라고 헌 것이…… 부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남자가 안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약속이 어그러져서(어긋나서)……. 지냉이하고 사름이 교합이 되어서 난 것은 사름으로 낫는데(낳았는데) 지탱을 하지 못하고 그 새끼까지 다 죽여 가지고 그 집안이 성공치 못했다 허여.

뱀을 구해준 포수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683, '85. 1. 15

현이경(62: 남). 고석희 조사

우리가 들을 말로는, 흰 배염허고 검은 배염허고 싸는디(싸우는데) 시골에 포수가 다니다가 연못가 우로 지나다 보니깐 흰 배염허고 검은 배염허고 둘이 싸움을 허여…

….

[조사자:예.]

둘이 싸움허는 걸 보니까, 하날 죽여야 하나이 살아나겠더라, 이 말여. 이러니 사람이 속심으로서 검고 희고 허니까 검은 배염을 쏘았겠다.

[조사자:예.]

검은 배염을 쏘아 버리니, 검은 배염은 강으로 골라 앓고 흰 배염만 있었는데 보고 돌아 왔는디.

이게 왜 그런고 허니, 배염들이 싸는 것은 용이 되어 올라 갈려고 허는디. 둘이니까 니가 오르자, 내가 오르자 해서 싸움을 하는 거라. 포수가 흑룡을 맞쳐 버리니 죽고

백룡이 올라 가니…….

용이 되어 올라가더니 뭉으로써 하되,

“당신의 공로로 내가 용이 되어 와 졌으니, 당신은 아무 곳의(곳에) 가서 집을 지어 사시오.” 해가지고,

[조사자: 꿈에 나타날때 그 때는 용으로 나타났습니까?]

용이 아니라 백발 노인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흑룡과 백룡 중에 백룡이 용이 되었다고…….

[조사자: 예.]

그렇게 해서,

“아무 되 가서 집을 지어라. 지어서 살되 삼십년…… 너는 살지 말아라. 삼십년만 살며는 당신 일평생은 좋다.”고 해서,

그 되 간(가서) 집을 지언 편안히 잘 사느디. 삼십년이 되거든……. 삼십년이 되니까 흑룡이 살아나 가지고 올라가는 거라. 교체가 되어…….

[조사자: 예.]

삼십년에 흑룡이 교체가 되 가지고 백룡은……. 이제는 원수를 갚으래 와가지고 그 되를 떠나야 될 건디 오꽃(그만) 잊어 부러 가지고……. 흑룡이 올라 가니깐 그젠 배락을 오저다(가져다가) 사방 바위를 다 모사버리국(부쉬버리고) 패가 했다는 겁니다.

왕도령 이야기

제주시 명도암 342, 1984. 8. 14.

김승윤(남·75), 고석희, 김효현 조사.

*다음에 이어질 왕도령 이야기는 역시 용이 난 새끼로서, 초반 부분에는 활을 아주 잘 쏘아 나중에는 물건 사러 장사를 떠난다. 배를 타고 장사를 떠나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더이상 나가질 않고 침몰하려 할 때, 배에 탔던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인신공회 재물로 바쳐질 것을 선별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된다.

경허니, 입은 옷은 서희가(셋이) 하나씩 벗은 바당물에 대겨(던져) 보자고. 바당물에 대겨 보며는 두사람 옷이 골라(가라) 안꼭 혼 사람 옷만 떠도 이게 죄여. 또, 두사람 옷이 땡(떠서) 혼 사람 옷만 골라 아자도 골라아준(가라앉은) 것 중에 하나만 특별한 걸 죄인으로 잡자. 영허거든,

“하나(한) 옷만 특별허민 이 사람을 죄인으로 잡자.”

아, 경허니 두 사람도 바당물에서 죽게 되니, “아, 옳다.”고, “그리 허자”고, 옷옷을 심엄 모두 벗영 바당드레(바다에) 훌훌 대끼난(던지니까), 몬딱(모두) 둥 둥 뜨당 왕도령 옷만 그만 골라아자.

[조사자 : 예.]

허니, 이녀냥으로 공론허고 이녀냥으로 죽게 뵈어, 왕도령이,

[조사자 : 예.]

“그러자.”고, 대인이니 무신 죽을……. 공론대로 허주. 이녀이 공론해뵈 반대할 수도 엇거든. 허니,

“내가 죄인 아니냐.”고, “내가 죄인이니 나를 바당물에 집어 대겨뵈 가라.”

아, 이 동서도 미안하기 짝이 없어, 왕도령을 주장대로 허든지. 왕도령을 죽영 대겨불기도(던져버리기도) 너무 미안해서,

“어찌 할까, 어찌 할까.”

“조들지 말라.”고 “죄인은 심엄 내가 죄짓은 사람이니 그뻔 골라 아즈민 대겨뵈 가라.”고,

저 대끼되. 경허니, 이젠 허니 물속읍으로 판직헌 돌방석이 하나 뵈여, 돌!

[조사자 : 예.]

돌! 돌 하나……

“물더레 대겨불기 정히 미안허거든 저기 돌 옷티레(위에) 날 심어 대겨뵈 가라.”

이제, 돌 옷티레 대끼니, 두러메연(둘러메여) 돌 옷티레 대겨뵈 간, 간. 동서들은 그냥 꺽꺽 꺽꺽 가부런.

허니, 일주일을 그 돌 우에 앓되(앉되) 원 먹어지는 것도 웃고(없고) 먹어지는 것 답지 안헌디, 원 뵈자당 보민 무시거 뵈 먹어도 뵈꼭 허는디 배도 고프지 안허꼭, 물

절도 이녁 몸디레(몸에) 아니 올라오꼭, 밤도 열도 안허꼭 무난히 지나진다 말여. 물가운디 돌 호나 잇는디, 무난히 지나져.

“이거, 또 어떤 일인고?”

그리 저리 혼 벳주일을 그 돌우에 살아. 이거 원 열도 안 허꼭 배고프도 안허꼭, 말잔보니 그게 용이쥬. 열도 안허꼭 배고프도 안허꼭.

허니, 그 어떤 일인고 허누렌(한다고) 허니 허루엔(하루는) 물 속읍으로 용이지만 변화허여 일등 아주 일색 처녀가 나오고 저 배 아잔(가지고) 오란,

“이디 타십서. 이리 타시민(타면은) 살려내겟습니다.”

그래 올라 아즈니(앉으니) 몰불견이여. 어디야 가는지 어떡 허는지 부지불간에 열매 어시니, 좋은 다락, 기와집에 아주 풍경 돌리고(달리고) 좋은 집에 들어가, 들어가니, 무똥(마당)에 가니 그 임자가 말을 허기를,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신 요새에 지나던 되도 용의 등뽕이(등어리)꼭 돌이민 허주 바당물에 경 됩니까? 용의 등뽕이꼭 당신 구호침도 용이 다 허고 이젠 용왕이지 사름의 짓이 아니다. 이 안직은(아직은) 우리 아버지가 용으로 늙어도 이시나마 조금만 지다리민(기다리면) 사름으로 변활허민 무섭지 안합니다. 아 그자 궂는(말하는)냥만 대답허십서.” 허거든,

[조사자 : 예. 그러며는 그 처녀는 용의 뿔 예?]

용의 뿔 족은……, 이마지 질어(질어) 질어 시간이 가.

“것사(그거야) 못허느냐?”

“저 변화허영, 저 우리 아버지가 오난애 그레 아지라 허기 전에랑 눈을 뜨지 마십써.”

눈을 뜨면 용이니 모수왕(무서워서) 혼빠질꺼난. 눈뜨지 말앗당으네(말앗다가),

“오, 자네 수고허엿꼬. 그레 아지라.”

허거든애, 이젠 눈뽕 절 허꼭 허민 저 질입니다.

이 시긴대로(시킨대로) ㄱ만(가만히) 잔 눈 궂으니(감으니) 원 ㄱ만이 사시니, 호썰시난애(조금있으니까),

“엇, 거 수고허엿꼬. 영 앓게(앉게)” 허연, 눈을 떴 허니 춤 그럴듯헌 백발 노장이 아작꺼든.

[조사자 : 예.]

똑, 그 춤……,

“오, 자네 수고하엿네. 그 방식이 내 이 등멩이지. 저기 돌이 그, 그런…….”

그제서 초립둥이가 씹나허니(싸운다 허니) 코로 빨강헌 물이 독독독독……. 혼잔 떨어지니. 이것 먹게 하영 먹으면 세상일이 다 알아점직. 허여. 뭐 용의 소리랑 모두 환이…….

훈 이틀쫘에 경(그렇게) 지내다가,

“아, 당신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청허자고 죄인도 문들고(만들고) 살리기도 허엿지. 뭇 당신이 죄고 있느냐고. 죄랑 마랑 적선잔디(착한 인데) 나는 조언 들을랴고 청혈랴고. 그것 저것이 다 내 수단으로 맨들아시니(만들었으니), 염려말고 나를 보호해 주민 당신도 내가 일 생전 사느디 보호해 주마.”

“예, 그것은 곧는냥 듣갓습니다.”

“그리 말고, 이제 아무 날은 평생 내가 서해 용왕광 싸움을 허영 바당을 두투되(다투되), 내가 정 훈 구생이(구석을) 여불곡(배앗기고) 여불곡허니, 이번에 싸우민 아 마, 나는 늙고 서해 용왕놈은 늙어……, 춤 젊은 놈이 되어서 팽생 물리니, 이번엔 다 뺏겨불곡(뺏겨 버리고) 나갈 곳이 없어서 당신을 청했으니, 나를 보호해주갓소?”

“저가 어떻(어떻게) 보호합니까? 보호할 수단만 이시민 심(힘)은 난 잇습니다.”

“그리 말고 요젠 날은 내 싸움을 부뜰(붙을) 테이니, 그때랑 허민 당신 자리가 물우에 나타날테이니 그 띄가 아갓당으네(앉았다가), 동섯 물이 마주청 이레 몰아강. 이레 몰아간다 저래 몰아간다. 막 고부릴 질렁 허당, 평생 내가 물령(말려서) 물결이 동되레 누영 서의 물결이 동되레 흘릴테이니. 그때랑 똑 물결 잘 인(일어난) 발라(곳에) 활 시개(세대)만 놓아 줍써?”

원, 이젠 끌어밧자. 물결디레(물결에) 활을 놓 나니(쏟다니), 물결디레 활을 밧자. 무신거……, 허되,

“예, 그것은 어렵지 안합니다. 활 시개를 제가 대맨 놓갓습니까?”

이젠, 그 뜰 보고,

“이 양반 좋은 자리 앓당(데려다) 모사라(모시어라).” 허니, 마 가도 오도 안허매

그 되 아자진것 (앉아 있는것) 끝아도 바당물 웃티레(위로) 동동 뜨는 자리가, 깨끗
현 자리가 나타나 그되 아자주.

아잔 춤 오짓날엔 현 날은 지나노렌 허니, 호령 광풍이 일고 뭐 물결 동되레 몰악
서으래 몰악 곱으래기 춤을 뭐 꺾치(같이) 허되, 이녀(자기) 아진 즈리는 온종일 물
결도 아무토(아무렇지도) 안허곡, 하도 이래 몰악 저래 몰악 허당 춤말자어는(나중에
는), 서래 바당으로 물결이 서커멍허더니 물결고 동해에는 그만 누엥 쏠쏠쏠쏠…
…, 동되레 몰아 가거든.

이녀 앞에 막 봐지난에(보이니까) 활 시개를 좌녁한 (맞추어) 그자 땅땅땅땅맞칠(맞
힐) 뿐이지 뭐. 무신 물결이 논 활이 어찌케 되었느냐 허니. 마치니, 이젠 열매(열
마) 이시매 또 서해 물결이 끓기고 동해 물결이 서리레 싸앙 허난, 춤 시원허여.

“아, 이게 어떤 일일까?”

젠, 이젠 훗쏠시니(조금 있으니까)

또 그 여자가 나오란,

“오십서.” 오십서자 말자 제, 그게 그거가 다시 그냥 그 좋은 집이 아니라.

“당신으로 한(해서) 뗏(뗏) 바당을 뺏겨볼 것을 이번엔 저놈을 이견, 활시위대에
맞안 죽었다”고, 죽으니 이젠 서해 깎장(까지) 내 촛지허게 되니, 내 반갑기가 짝이
없다고. 당신의 소원대로 줄 테니 말허라고. 게난 두마디 해서,

[조사자:예.]

또 앞의 보니 만만 지루여, 뭐 하간(별의별) 금뽕이(금덩이), 뭐 하간 벨 금은 조
화 뭐……. 벨게 앞의 다 잊거든.

[조사자:예.]

헌디, 그 문 안티레(안으로) 들어 갈 때, 그 여자 경허니. 용이고 뭐이고 다.

“우리 아버지가 몰자(나중에) 공 값을 때, 무신 걸 요구허라며는 벨걸 요구해고 대
고 듣지 말고, 앞의 논 연적이나 주민 아정가갯십니다 허라.”고 시키더라여.

[조사자:전적마씨]

연적!

[조사자:아, 연적. 예.]

연적은 그 풀, 지주게(자기여). 지라.

[조사자:예.]

그놈의 용의 똥도 몇번 확 허민 변허영 똥도 되엇닥 사름도 되엇닥,

[조사자:연적은 용의 똥이구나 예?]

똥!

[조사자:예.]

그게 그 청허래 가는 똥이주게. 죽은 똥.

[조사자:예.]

이제는 뽕걸 아무게라도 아저가라고(가저가라고) 뽕음대로 민간에 강쓰게 된 걸랑으
네 아무게라도 아정가곡, 민간에 강 위급현 일이 실지라도(있을 지라도) 나를 부르민
도와주마.

거 뽕걸 꼴아도 돈도 필요업십니다. 돈은 무신 거, 용이 돈이 실 게라? 변화만 했
당 돈이 필요험만(필요하기만) 허민, 민간에 나오민 조화를 부령 돈을 뽕아다 줄께
주. 무신 돈이 성 주는 거라. 금뽕일(금뽕일) 아정 가랜해도 금뽕이도 필요……. 나
뽕 돈이고 금이고 필요가 엇는 사름입니다. 영허거든, 뽕 뽕거랜 꼴아도,

“그냥 허갯십니다.”

“경허여도 당신 공으로 내가 서해꼬지 다 츠지헐(차지해서) 그냥 보낼 수는 엇꼬.
뽕 당신 소원 풀어야 보내겟다.”고,

“정 경허건, 그 앞의 논 연적이나 주민 아정 가갯십니다.” 허거든, 허 이거 놔도 이
젠 요구헐, 도랜해. 하여튼 말댄 허다가 연적을, 뽕을 달라 허니. 아 이거야 뽕 아까
운 뽕을 주기가 아쉬러워.

머리만 그닥그닥 허다가, 아덜덜을 불르더라허여. 아덜덜 빨리 불령,

“거 스실(사실)이 이만 저만 허연 현디 원, 앞의 논 연적 뽕인(뽕엔) 뽕 원허는 것
이 딱허다.” 허니, 거 아덜놈 흥나이 꼴거니(말하기를).

“허 거 무신 험입니꽈? 깡딱(까딱) 해시민 서의 놔헌티 아방이 동해꼬제(까지)다
뽕거 불 것을 서해꼬지 츠지허연, 그까짓 뽕 호나 주기가, 뽕도 민간에 강 살령 허민
좋지 안험니까?”(웃음)

허니, 이젠 아방도 웃으멍 뽕끼더라고. 조금 아쉬러우니 앞되레 탁 뽕끼 더라여.

“고맙습니다.”

이제는 허는 말이,

“이 양반 서난되(있었던 데) 데려다 불라.” 끝으니, 이시나니.

또 그 서난되 아자졌더라여!

[조사자:예.]

반석 위에, 이젠 연적 하나 번게주. 연적 호나만. 동산 언덕에 오당 보민 아이될 테이니, 옷 속읍에 곱졌다. 곱져두고 척 있으니 얼마어선 내 젓으멍 궤치(같이) 간 놈덜이 오라. 먼 되서 영 바리억 바리억 오란 보되.

“어, 저놈이 심언 댕겨 부러뜨려든, 고져 살았네?” 영허멍 오랏다.

“경허던 산 게니, 죽기라도 해시민, 내가 죽기라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지금 배 안골라……. 장사는 어찌 되었느냐?”

“아. 잘 되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거 용이 조화부런 장사는 잘 되었어.

“당신이 아니 가오라도 마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강 다 궤치(같이) 갈라 내겟습니다. 당신 공로로 우리가 잘 되니, 궤치 갈라 내겟습니다.”

“아니라,”고 “자네네 번개매 앓을 필요도 엇고…….”

쉬어(실어) 오랏는디, 이젠 허는 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벌언 오니 갈라 아전 자진 연적 하나 벌언 오랏는디. 잇는 사이엔 허는디 뭐.

집도 그제도 원 혹에나 좋은 집이 나오고, 그런 집 궤튼건 짓어 주젠 허민, 춤말 뉘 용의 조화로 사름 뱃 거느령 목시덜 밤이민 와닥탁 와닥탁 허는 소리나민, 집도 짓어지곡 뉘, 쇠·물도 나곡 뱃 짓도 다 나오란 사는디. 하나만 행 아갓꺼든.

아무 것도 조화로, 먹을 짓도 궤만이(가만히) 아자시민(앉아 있으면) 좋은 살림 끝 어 오랑 먹곡 허연, 생활은 좋으나마 요놈의 연적이나 해봐야 허는 건디.

연적이 그 용의 똥일줄 알긴 알명도 원 이런 내용을 알아서 퍼썩헌 일이 생기니, 이것만 애를 써도 마, 잘 먹고 잘 입어지니 아무 생각도 어시 그 꿈꿨이엔 현 거 그 각 시힐 생각을……. 뉘 뱃 수가 어서(없어). 그 내중엔 없어.

허루는 막 자는체 허멍, 허루는 막 자는 체 궤만이 연적을 안앙 뉘봐도 소용이 엇고. 이건 무신 연적 물 고냥만 냉견(남기고) 조지랭이 안앙 뉘 봐도 소용이 엇고.

(웃음) 연적도 내부러 두고 고만이 된 좁은 안자명 막 자는 채 허멍, 밤인 눈을 영
곰은 채 해둬서 보니. 곳곳헌 거 그걸 호나 떼껴된 철갑을 확 벗어 뒹 나오랑, 뒷날
아침 밝으거니 나오랑 가민 밥상으로 들어가곡, 혼번 나오랑 가민 옷도 매날 좋은 옷
입꺼든. 원, 참.

“그 철갑 속읍에 잇구나?” “피를 내민 될 켜가?”

연구를 멧틀을 해봐도, 연구가 이거 원. 나오곡 나들어 가는게 되긴 허되. 조화가
만편이라 해볼 수가 어서, 없꺼든,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해볼 의사가 어서. 밥상 들렁
뒹 거시러 보주마는, 연적도 밥상들렁 혼번 여자가 나오랑 가 경허는 걸 뵈긴 했지만,
그때 급허게 뒹 허여도 이녁이 용심내민 아니 될꺼고. 아명해도 좇지 못허니 흥룻밤은
뵈아 올 때, 글로 여자가 출런 나오젠 허니 폭허게 안아 불더랜 허여. 뒤로 폭 심언,

“나를 보호허래 와시민 살아 주어야지. 연적만 평생 되엄시민(되어 있으면) 되느
냐?”고,

폭 안안, 가도 오도 못허게 폭 안으니, 이제는 여자도 영 생각해 보다가 아직은 혼
(기간)이 안되었다고.

혼 삼십 년을 어떻 내 살아가 볼거든 나오민 참말 좋을 켜디.

[조사자 : 삼십 년 마씨?]

응!

질주계(질지), 무슨 뭐 삼십년이 무신…….

[조사자 : 예.]

여자도 어찌 헐까, 내 혼 삼십년을 어떻 철갑 벗어뒹 좋은 여자로 살아시민 좋은디.
좋은디. 허다가도,

“홀 수 엇다고 당신이 정 경 춤질(참질) 못한다니 살아준다.”고,

그젠, 연적 그 연적 꺾택인(꺾질은) 어디가 부러신디 모르더라여(모르다더라). 가
븐더도 모르고 좋은 여자로 살아서, 멧 년을 살아가니 죽식을 베연 낚는디, 췌 번도
아덜 낚고 아덜 세 성재(삼형제) 꺾장(까지) 낫젠(낫다고).

아으를 낫첸허민(낚으려고 하면) 가불렌(가버리라고) 허더라여 그 서방 보고,

“나는 저 해산을 헐 터이니 어딜 강 메틀간(며칠간) 놀당 오랜.”

“춤 거 해산허는디 사름이 셔야(있어야) 보호허주. 가야 되느냐?”고,

“아니라고, 나 걱정마랑 나는, 거 보는 법이 아니라.”고,

용이 보는 법이 아니니 어디 강 음식도 사먹곡 혼 댕새 놀당 오라야쥬. 거 보는 법이 아니엿(아니라고) 허멍 첫번 그…….

혼 댕새 놀단 오니 춤 좋은 아덜을 난(낭안) 놔뒀어. 그 보다는, 곧 살앙 언제엔 가서는 또 왕으로 베영으네(베어서) 또 낭게된.

그때도 낭겐허연(낭으려고 해서) 해산을 헐 터이니 놀라고. 그대로 들었 그대로 들었지.

혼 댕새 놀단 오란 보니 좋은 아덜을……. 아덜 성재(형제)를 키우고 또 뱃년만에 세번재(세번째) 아이를 베연 낭게 되어도 낭는 날은,

“당신, 어디 강 혼 댕새 놀당 오소.”

그러겟노라고 대답은 허연 올래(골목길)로 나오멍도 용심(화)이 나더란 말여. 원. 아덜은 성재나고(형제 낭고) 셋꼬지……. 그걸 아니 봐야 헐쨌디. 보들 아니 허영 그자 허엿더면(하엿다면) 삼십년이 춤 시민(있으면), 참말 여자도 되어 불곡 모든게 원할 헐쨌디(잘되어질 켜데).

흐루는 무똥(마당) 베겟디(바깥에)나가도 용심이 안나게민. 뭐 어떻사(어떻게) 나는 겐디(것인지) 알도 못허고 보고쟁도(보고 싶기도) 허고, 이 그리말고 가노렌 해똥 보자. 어찌허느냐고.

이젠 먼 베겟디(바깥에) 가는 체 허다가 돌아오란 먼 먼 베겟디 ㄹ만이(가만히) 사똥서(서두고서) 문궁디(문틈)로 보니, 뭐 집은 어디에 갓는지 뭐 그거 큰 바당물이 되언 용의 대맹이(머리)만 흔들흔들 놀멍(놀면서), 물에서 바로 춤 조식을 낭는 것 ㄹ치(같이) 몸 껌지느라고(목욕시키느라고) 물에 불탕불탕 막 허거든 원 이젠 겁이, 경허난 뭐 용은 그만, 용이 그 눈이 히뜩히게 문고냥(문구멍) 밖의 문고냥드래 봐련. 밖을 보니 그젠 물을 확 거두와 불드랜(버리드라고) 그젠(그뻔) 물을 확 거두와 버련, 편찍허니 집 되어 부련(버련).

“집디레(집으로) 들어 오라.”고, 여자가. 잘 봤다고 들어 오라고.

“이제는 당신 나 끝는(말하는) 대로 꼭 경 삼십년을 허민 조식도 뱃(땃) 성재를 더 나고 당신허곡 좋은 살림이 될게인디. 홀수어시 다 돌앙(데리고) 가볼 수는 엿고, 몬

저(먼저) 건 내 거두왕(데리고) 가불(가버릴)꺼고 이번 난(낱은) 건 당신 눈에 띄여
시니, 홀시어시(할 수 없이)……. 이것만 좇지(차지)허라.”고,

가명(가면서) 미신거(무슨것) 살부치라고(살붙이라고) 주는체 해뒀(해두고) 가
니, 살은(살은) 뭐 부재로 살되 금 ㄹ튼(같은) 거 뒀된 가니. 허지만 바뀐 가부니
(가버리니) 매기더라여(없어지더라고 하네).

아덜 성젠(형제는) 돌안(데리고) 가불고(가버리고) 죽은 아덜만 돌안(데리고) 사
는디. 그 왕건 태조가 죽은 아덜이 나중이 되여서, 왕건의 족손(자손)은 뱃대를 정해
져 비늘이 돌앙(돌아서) 낫다고 허지마는, 용의 물림(후손)이라 노니.

[조사자:예.]

강감찬 이야기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300, 85. 1. 15.

양종흡(남·80), 고석희 조사.

꿈에다가…… 강감찬이가 평양감사로 신 때 예 몽을 보는데, 몽에 한 ㄹ지(무지개)
가 다 되거든…….

[조사자:예.]

이제 뒷저녁날은 물을 타가지고 이녁 사는 집이를 가다가 보니깐 어떤 들에 조흔 집
에 처녀 하나만 있는 디가 있거든. 간 보니 처녀가 상당히 이뻐. 이쁘니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처녀 보고,

“이 즈냐 하룻밤 유해가민 어떠냐?”

이러니까,

“아 좋습니다.”고,

“거 방안도 좇치 안힙니다.” 이러니

“그래도 조타.”고,

아, 들어간 보니 방안도 참 그럴듯 허게 이서. 그것이 여우거든, 여운 지도 모르고
……. 아, 이제는 그날 즈냐 밤이 서로 교제가 났던 거라. 되니까……, 뒷 날은 떠나

제 되니까 말하기를,

“나가…… 육체를 가져갔으니까 아무달 아무날 썸은 내가 해산을 할 터이니 삼일 후에 오랑 아이를 도라 가민 허곡, 안 도라 가민 당신네 집이 속밧됨(망해 버린다)이 된다.” 허니,

아 이제는 그말을 들으니 거 이상현 생각이 나. 이제 수첩에 딱 기재해 가지고 평양으로 넘어간. 그날 삼일 지낸 스일(四日) 차는 우뚝(문득) 생각이,

“하, 내가 이러 저러한 일이 이시니 못쓰겠다”고,

수첩을 내란 보니까 혼 이틀을 지냄따 말여. 이제 혼 수 없이 내려 오랑 보자고. 내려 오란 보니까 그젠 이미……,

“당신, 오늘 안 오라시민 당신네 집인 그만 운이 끝난 거우다. 이제 잘 왔수다. 아기 받앙 가라.”고,

이젠 아기를 안고 나간 보니 집도 엇고 아무것도 없어……, 처녀도 엇고, 바깥디 나간 보니 편쩍이라 이젠. 외지 경기라. 이제는,

“아, 내가 여우광…….”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그 아길 데리고 올라간……. 이제… 요새 ㄱ트민 홍역허는거.

[조사자:예.]

이 아가(아이가) 처음에 홍역을 해서 얼굴이 좀 얇으니까,

“안되겠다. 박색을 맨들겠다.”고

도 이제 그 구메를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번인가 마누라(홍역)를 해 가지고, 얼굴을 막 박색으로 만들어서…….

흥 루는 아방이 어느 대감네 집에 잔치가 있다고 해서 잔치를 먹으러 오랜 통지를 오니까, 아들을 모르게 허자고……. 남 부치럽게(부끄럽게) 생각허거든, 얼굴이 추접해서……. 현디 뜬금어시(갑자기),

“아버지 닐(내일) 잔치 먹으래 가젠.” 허연,

“미친 자식이로고……, 어디 잔치 말이냐? ……?”

“난 다 알암서.”

“미친 자식 허그네.”

뒷날은 아방이 잔치 먹으래를 가가니, 먼 발로 슬슬(살살) 딱라갈꺼 아니라. 건너 간 보니 춤 큰 대감네 집이라 잔치도 우월허고……, 신랑이 온 걸 보니까 사름이 아니라……. 이 버염(뺨)이 빈경(변화)되어 가지고, 사름으로 해 가지고 왔다 말여. 이제 는 상받은 그때는…… 강감찬이가 창문 열고,

“초당으로 가서 우리 큰 양석 지읍시다.” 신랑허는 말이,

“아, 오늘 머리 아프고 못 하것습니다.”

“오늘, 신랑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 거 훔 수 없이 초당엘 올라 가니까, 그 즈막만은(그쯤에는) 장점으로 잡아 쏜겨 (갈겨) 대연…….

[조사자:예.]

큰 데맹이(구렁이)가 되어서……, 장점을 맞은 놈의 대맹이가 슬슬슬 기어가지고 마당을 나가거든……. 그 잔치집이서 어떨 꺼과 제? 거 큰일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 처녀는 강감찬을 조은 사월해서…….

호종란과 행기물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683. 85. 1. 15.

현이경(남·62), 고석희 조사.

제주시 화북 동주원에 가머는 거기 쪼그마헌 물이 있지요.

[조사자:예.]

그 행기물이라는거. 호종란이가 제주도에 와 가지구서…….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로 혈을 다 뺏는디, 제주도에 완……. 호종란이가 제주도까지 와 가지구서 대혈을 다 뜨는디. 거기도 물혈을 뜨래 완 보니, 물있는 디……. 발 가는 디서 물 먹을라고 행기, 이 늦사발을 가지고서 물을 확 뜨니 그 물귀신이 늦사발에 들어와 가지고…….

[조사자:예.]

말허자면 그 늦사발 물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물 있는 디랜 이제 혈이 없거든,

“나를 살려 주시오,” 허니
 그 낫사발을 쇠질메 아래레(밑으로) 툇히게 놔두니……. 이거 뭐 호종란이는 이더 완
 보니 귀신이 읊어. 오다가 암만해도 못 찾으니까 이자는 밭 가는 사람을 보고,
 “여보시오,” 허니,
 “왜요.”
 “여기 질메 아래 행기소가 어디요?” 허니가,
 질메 아래 행기소가 어디서. 그런게 없거든.
 “뽕은 낭 아래 행기물이라는데 그런 물이 없소”
 그냥 가.
 “아, 내가 잘못 봐진 거 같다.”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제 가보니 그 쇠질메 알을 간
 들런(들고서) 보니 거기 물이 되어 가지고 막 파져서……. 그래서 그제 행기물이라.

어처불상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1683. 85. 1. 15.

현이경(남·62), 고석희 조사.

지금은 논나라고 옛날은 노나라, 그 시절에 공자님의 장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장
 자라는 성현인데, 어떻게 됐는고 하니 어처불상이란 말씀이여 어처불상…….

[조사자:예.]

장자님께서 지나다 보니깐, 웬 부인이 무덤 위에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장자님이 허시는 말씀이,

“어째 이…… 부인이 부채질을 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내 남편의 무덤인데 돌아가시면서로 허시는 말씀이, 내 무덤에 풀이 마르거든 개가
 래 가라, 이렇게 허니……. 이 말씀을 듣고서 풀을 재게(빨리) 몰려서 개가해 가고정
 해 가지고 말립니다.” 이러니,

장자님 허시는 말씀이

“그거 그러면 풀을 말려서 개가를 하고 싶으냐?” 허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려 주지.” 해서

그 앞에서 풀을 바삭 마르게 만들었어. 그 선사(선물)로 부처를 드리더라 말여. 장자님이 그 부처를 가지고 와서, 그 부처를 내놓고 보면 자꾸 웃음이 나. 이런 부인이……, 해서 자꾸 웃으니

“여보시오 당신은 뭐이 그렇게 반가운 일이 있어서 자꾸 웃느냐?” 이러니까,

“그. 뭐 내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다.”

그래도 자꾸 웃으니깐 또 물으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 날 아무 날 경에 아무 디 지나다가 보니깐 무덤에 부쳐질 허는 부인이 하나 있더라, 그 부인에게 물어 봤더니, 누구의 무덤이냐고 하니깐, 그 무덤이 자기의 남편의 무덤이라. 그래서, 왜 부처질을 허느냐?, 이러니깐, 내 무덤에 풀이 마르거든 개가해 가라고 해서 풀이 말르전 개가현다고 이렇게 부처질을 합니다. 꼭 개가해 가고 싶으냐? 하니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루와(말려) 주니 선사로 이 부처 훔날(하나를) 주더라, 이러니 부처를 보민 자꾸 웃음이 난다.” 그러니 부인이 허시는 말씀이,

“그거 참 뭐 그 깎지 헐 수 있느냐?”고 해서 코웃음을 보이니,

“그,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해서 담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 제민(그러면) 부인은 그러 처사를 안허짚꼬만?” 하니,

“내야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하루로는 잘자님이 병이 났다 말여. 갑자기 병이 나 가지고 떠억 와병으로 누우니……. 부인더러 허는 말씀이,

“아무날은 내가 죽을 것이다. 몇시에, 꼭 죽을 터이니 나를 절대로 죽어도 매장하지 말고 장사를 하지 말아라. 내 방에다 그대로 상정을 가만히 놔 두라. 매장하지 말고……. 거 내가 절대 유언을 허노라.”

아, 그렇게 허고 놔두더니, 그날 그시간 되니 똑 죽었다 말여, 장자님이 죽으니, 유언한 말을 어기고 삭삭 장지 출려 가지고 싹 매장해 가지고 관을 차서 삭 입관 시켜서 신령을 딱 시켜서 났다. 신령을 딱 시켜서……, 냉중에다 신령을 딱 시켜 놓고 나니, 아 맏칠 만은 천만 뜻밖에 젊 청년 한 분이 와 가지고, ”……

“선생님 제십니까” 해서,

“아, 선생님은 맏칠 전의 세상을 떠나 가지고…… 아파가지고…….”

“하, 이거 선생님을 뵈러 왔더니, 이거 뭐 그러든 영혼이나 뵈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상 모신 방에 오라 가지고 삼배를 드리고 아잔 그말 저말 허는게 날이 어둑었다. 날이 어둑으니, 그날 저 거기서… 장자님네 집에서 잠을 자게 되니. 아 이제 그리 저리 허는 것이 이 동자가 떠나들 안해 가지고서 집에 있어. 집에서 선생님 장사나 봐서 갈랍니다. 허는 것이 맏 사흘이 흘러 부러……. 맏칠이 흘렀는디……. 이제 그러는 밑에서 그 동자하고 장자님 부인이 정이 들었다 말여. 이렇게 정이 들었는디, 허다가 동자가 병이 나서 곧 죽게 되어 백약이 무효라, 사름은 다 죽게 되는데…….

우선 장자님 죽어서 문을 생각 보단도…… 이제 이 새로 만난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백약이 무효니 어디 뵈 약이나…….

“내가 살아날 약은 전혀 없노라.”고,

“무엇이 그래도 소원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

“소원이라는 거는……, 죽은 사름의 간을 내다 먹으면……, 약은 그거 직효 약인디 그런 약이 어디 이서야……, 죽은 사름의 간을 내다 먹을 거냐?”고, 가만히 장자님 부인이 생각을 해 보니까, 장자님이 죽어서 관찬 토롱해 둔 송장이 있단 말여.

“모르겠다. 죽었고……, 이거 갖다 아무도 모르게 내 혼자 가 가지고 파다가 간을 내어다 이 분을 뵈여 살리자.”고.

가 가지고 토롱해 둔, 말허자면 토롱해 와 둔 디 가서 무덤을 파헤치고 도끼 가져간 관창을 탁 깨연(깨여서) 보니까 장자님이 우꿇이(우뚝) 일어난단 말여. 우꿇이 일어나니까, 뵈 간 내올건 뵈 혈 일이고 이런 일이 이시랴, 해가지고…….

집에 오란 이렇게 좌정해 딱 방에 들어 오란 앉으니, 부인네가 하도 어처구니가 어서(없어서) 기가 맥힌 일이니, 목을 매어 죽어 버렸단 말여. 아, 들어 오란 좇으니, 가 보니까 부인네가 목을 매어서 죽어 부렸으니깐,

“아, 그제 어처불상 내가 잘못했구나.”

부인의 마음을 한번 심맥을 받을라고……. 장자님이 숨고서 거짓 죽고, 무덤에 가

게 허고, 또 환생해 돌아와 가지고서 동자로 와 가지고 부인에게 그렇게 해서 혼번 심맥을 받았더니, 부인은 그걸 모르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죽어 부렀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장자님이 어처불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예요.

[조사자 : 예.]

지금으로 부터 아마 2천 5백여년 전이지.

최고운 이야기

제주시 명도암 342번지 1684. 8. 13.

김승운(남·74), 고석희, 김효현 조사.

아주 명인이었어. 우리 나라에서……. 어느 황제 댜지 모르되 명인이랴는디. 그 사름이 에민간에 도새기 새끼라.

[조사자 : 예, 처음에 예.]

도새기가 생겨분제라.

[조사자 : 예.]

최고운 아방이 도새기. 옛날엔 지금 모양으로 사름이 하영. 살아나지 안 현 땐, 짐승에도 부땡 나곡, 짐승이 사름에 새에 부땡나곡, 요런 사름이라야 대인(大人)이나. 그 사름이 옛날 그런 사름이랴다여. 최고운이 도새기 새끼라 허니, 마 도새기 새끼가 어찌 되었느냐 허민, 최고운 어멍이 젊은 때에 다가 서방도 잇긴 잇는 사름이지마는, 밤에는 부지불각엔 잠을 자도 말도 아니허영 비몽사몽간에다가 뵈 자노랜 허민, 어떤 초립둥이가 오랑 바로 원 교제를 행 가불거든.

밤이, 이게 어떤 일인가. 꿈광 원 일어나지도 못허곡, 꿈인지 생인지 말도 못헌 때, 어떤 초립둥자가 오랑 이녁광 누엇당 가불곡 가불곡(가버리고). 정신을 혼미시켜노니, 오랑 뵈당 가쟁 해도 반대허곡 옥대곡 허는 순간에 그만 가불곡 가불곡.

이제 혼 사흘 출려불겐, 허, 이상스러원 좇쟁 좇쟁해도 좇을 수가 엇고, 잠이 들자마자 허는 때에 그만 오랑 교섭을 행 가부니 좇도 못허고, 허니, 일주일 간을 매일 처냐(저녁) 오랑 가 이 초립둥이가 이제 잠이 흐리무니 경헐 허니, 이제 그 사름이 기진

해부렁 흐리무니 줍을 자부니 오랑 가불곡 가불곡.

그땐, 그것이 조심을 허고, 매일 조심을 허더니, 흐루는 어땡헌 양반이 들어오라서
이말 저말 허는디 사름이 비상헌 스름 님아 뵈거든, 그 스름이, 비상헌 스름 님아 뵈
니 그 말을 했다고, 그 말을 허니, 그 사름이 말을 허기를

“그 좃을 수가 있나.”고, 좃을 수가 잇는다. 이 저녁에랑 오랑 갈 때랑 실을 멧거림
을 사당 살 풀어지게 풀엉 낫당, 오랑 갈 때랑 존둥(잔둥) 뒤에 저 바놓을 실귀에 꿰
어 둘서, 실귀에 꿰냥 사 거시기 톱 졸라 매영 내 불라고.

[조사자: 예.]

경 허는냥 풀어 주라고 했어. 그냥 실을 죄어 둘서(쥐어 가지고) 멧 천발이라도 풀
어쥬, 나가는냥 풀어쥬 불라.

“예.” 허연,

아, 제난 그날 츠냐(저녁)은 또 부지 불각에 오랑 낫당 가거든 허니, 실을 톱 졸라
매어 부러뜨든. 무장(한없이) 풀어 주는디, 실 멧 거림이 다 가. 무장 가 버련.

깨어난 보니, 강고냥(장구멍)으로 나갔거든, 옛날 미신(무순) 저 대로 얹은, 그 바
꽃되 대로 얹은 창이어서. 강고냥으로 나가부러서. 이젠 이 양반 좃을 수 엇고 실이
뭐 멧 천발 발이 나가노니 좃을 수가 이서?

실 간 되로만 가는덴 해놓고, 종금종금 막 조차가니 산을 멧을 넘고, 막 또 험악한
산 꼭뒤에 간 보니, 험악헌 산 꼭뒤에 간 보니, 춤나물 흐나에 간 그만 바늘귀가 톱 고
장이서 춤나무에.

[조사자: 예.]

춤나무에, 섭에, 그 기묘한 일이주. 춤나물 쏠에 바논귀 꼬자 져주게. 거이것을 보
고 알 수가 있나 뭐. 춤나물 산중에다가 놈뻘 흐나에, 아니 이 졸라맨 제가 톱 꼬지와
저서.

그 존둥이에, 초립둥이 존둥이에 졸라맨 내부런, 그만. 꼬지와전 갓단 말여. 동습
(童蓍)이 말잔 보니, 인삼이 천년을 묵으면 동삼이 되어서, 사름신디, 여자헌티 외입
허레 땡기곡. 아으 생겨 불곡 뵈 조화를 다 부러시디. 그놈을 허영 먹으며는 아주 춤
장생불사헌덴 해서, 이제는 그것을 해볼 수가 엇거든.

놈뻘 하나 섭에(앞에) 간 바논귀만 꽃아 져지. 아무 흔적이 어스니(없으니) 이제

는 모다 사(모여서), 이젠 어찌 하느냐, 어찌 하느냐 막 유리현 사람의게 좇아 땡기멍
(다니면서) 물음 물음허니, 그게 동삼이라고 동삼인디, 그 것을 강 매민 또 조화가 생
길게라고.

동삼이, 늪배를 매영 먹젠 허민, 늪배로 뵈지 안허영 또 다시 무신 조화로 뵈일 테
이니, 그땐 정신 출렁(차려서) 짐승으로 보엿던지, 늪배로 보엿던지 잡아 먹으라고.
잡앙 먹영 봐두민 허는 수가 있나.

이젠 건강한 남자덜 뱃이 돌안간(데려가서) 늪뽕 확 매니, 대 돛이라 그만, 변화,
변화, 동삼을 매영 찹앙 먹을랴 허니 대 돛이 되어 부러거든.

대 돛이 되어, 대 돛이고 뭐이고 끝은냥 모다 들언 그냥 혼번가니 잡아단 먹엇지.

[조사자 : 대 돛마씨?]

대 돛!

[조사자 : 아, 돛마씨.]

그게 변화허여서 돛으로 또 되어 분거주. 자기가, 자기가 변행 살라고. 외입은 땡
견 아은 생겨 뵈지, 자기가 죽게 되니 이제는 면할랴고. 대 돛이 되언 곱곽허멍 사름
을 물젠허니, 똑 치와 간 잡아단 먹으니, 그냥 대 돛이 되언, 아진 나안 현디. 최고은
이름이, 최고은인디, 조선 그 사름만헌 맹인이 엇댄 허여. 한 때는 국가의 무신 위급
헌 일이 생경 불려가도, 요리 저리 허민 될겁니다, 허민 똑 맞아정 되어 불곡. 모르는
일이 웃더라(없더라) 허여.

[조사자 : 예, 최고은엔 현 그 사름이 예?]

응, 눈이 흰해서 흙치(하영든) 무신 모른 일이 으섯다해여. 눈이 흰해서, 맹인이
랴주. 그가. 맹인이랴고, 그런 사름이 많이 잇주. 옛날은 그런 사름이…….